



# 정답과 해설

중학교

국어 2-2

박현숙 외

1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

01 사회를 비추는 문학

제재

본책 10~33쪽

- 1 ⑤ 2 ② 3 ④ 4 정겹고 인정이 많다. 5 ② 6 ①  
7 ④ 8 ③ 9 일견 대견하게까지 보였다. 10 ⑤ 11 ②  
12 ⑤ 13 제 죽을 구멍 파는 미련한 짓 14 ② 15 김포,  
것이다. 16 ⑤ 17 ① 18 ② 19 ⑤ 20 ④  
21 ③ 22 상심 청과물이 김포 슈퍼, 형제 슈퍼의 경쟁 상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23 ① 24 ④  
25 ② 26 ④ 27 ⑤ 28 ④ 29 상심 청과물이  
부식과 김 판매를 포기하고 과일만 팔기로 하였다. 30 ④  
31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1990년 이전이다. 32 ④  
33 ① 34 ④ 35 ③ 36 ② 37 다들 먹고살아  
보려고 아웅다웅하는 것이니……. 38 봄 39 ① 40 ③  
41 ④ 42 ② 43 ⑤ 44 ② 45 봄별

- 1 이 글의 배경인 1980년대에는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으로 일  
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당  
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바탕으로, 경호네 내외가 충청도  
산골 마을에서 야망을 품고 상경한 배경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나)의 '가게에 딸린 단칸방'이라고 제시된 부분  
에서 원미동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넉넉한 형편은 아  
님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여름의 원미동 거리는 더위를 피하기 위한 사람들로  
저녁 늦게까지 북적이지만, 추위가 닥치는 겨울에는 그렇지 않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김포 쌀 상회가 김포 슈퍼로 확장 개업한 것이 원미동 거리에  
서 흔한 일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오히려 (다)에서 사람들  
은 김포 쌀 상회의 눈에 띄는 성공을 보고 놀랐다고 하였다.  
④ (나)에서 모이기만 하면 행복 사진관 엄 씨가 인삼 찻집 여자  
와 연애를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부분을 통해 남  
의 일에 관심이 많은 원미동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 2 '연탄, 쌀 상회, 유선 방송, 옥상의 안테나'는 모두 1980년대의  
시대적 배경과 생활상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반면, '세탁소'는  
특정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으므로, 1980년대의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볼  
수 없다.
- 3 (다)에서 경호네 내외는 억척스럽고 성실한 일꾼이며 성격이  
모난 데 없이 원만하고 예의가 바르며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  
이 넉넉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경호네 내외가 자존심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 4 ①에서 원미동 사람들은 김포 슈퍼에 일부러 찾아가서 물건  
을 사 주며 경호네 내외의 앞날을 격려해 주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정겹고 인정이 많은 원미동 사람들의 특성을 알 수  
있다.
- 5 (라)에서 경호네의 가게 확장이 원미동 거리에서는 모처럼 보  
게 되는 사업 확장이라고 하였고, 거리의 가게들이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을 통해 경제적 형편이 대체로 좋지 않은 원미  
동 가게들의 상황이 드러난다.  
| 오답 풀이 | ① (라)에서 도시로 떠난 사람이 많아 일손이 부족  
한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형편이 언제 나아질지 그것조차 까마득했다.'에서 원미동 거  
리의 가게들이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거리 상인들의 별이가 앞으로 더 좋아질 예정이라는 내  
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경호네의 가게 확장이 원미동 거리에서는 모처럼 보는 사업  
확장이라고 하였으므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을 확장하  
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⑤ 원미동 거리에는 지물포, 사진관, 전파상, 정육점, 미용실, 부  
동산 등 다양한 업종의 가게들이 있으며, 가게들이 서로 경쟁을  
벌이는 모습은 (라)에 나타나지 않는다.
- 6 [A]에는 고흥댁이 사용하는 지역 방언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  
다(③). 이를 통해 인물이 전라도 지방에서 이주해 왔음을 알  
수 있으며(⑤), 인물이 사용하는 방언을 그대로 살려서 제시  
함으로써 작품에 현실감을 더하고(②) 인물의 감정과 생각을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④). 그러나 이러한 방언의 사용이 작  
품의 주제를 강조한다고 볼 수는 없다.
- 7 [A]에는 대부분의 가게들이 별이가 좋지 않은 시기에 가게를  
확장하는 경호네의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는 고흥댁의 심리가  
드러난다.
- 8 (마)에는 친절한 경호 엄마와 성실하고 부지런한 경호 아버  
지가 운영하는 김포 슈퍼의 풍년 조짐이 드러난다. 김포 슈  
퍼는 다양한 품목의 물건을 취급하며, 싹싹하고 친절하게 손  
님을 대한다. 또한 부식값이 시장보다 저렴하며 판매하는 채  
소나 과일들이 싱싱하고 질이 좋아 사람들의 평가가 좋다.  
그러나 시장보다 배달 속도가 빠르다는 내용은 (마)에 제시  
되어 있지 않다.
- 9 (마)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한 경호 아버지를 '일견 대견하게까  
지 보였다.'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소시민의 모습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드러난다.
- 10 형제 슈퍼의 김 반장이 쌀과 연탄을 벌여 놓고 입간판을 내다  
놓은 것은 자신과 동일한 품목을 취급하기 시작한 김포 슈퍼  
의 확장 개업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으로, 자신도 김포 슈퍼에  
서만 취급하던 쌀과 연탄을 팔아 고객을 확보하려고 한 행동  
이다.

**| 오답 풀이 |** ① 김 반장이 쌀과 연탄을 팔기 시작한 것은 김포 슈퍼의 개업에 대응하여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므로, 동네에서 가장 규모가 큰 슈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② 김 반장은 자신의 이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쌀과 연탄을 팔기 시작한 것이므로 동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쌀과 연탄은 경호네가 김포 슈퍼로 확장 개업하기 전 김포 쌀 상회일 때부터 팔았던 품목이므로 김포 슈퍼에 없는 품목을 팔기 위해서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김 반장은 김포 슈퍼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쌀과 연탄을 팔기 시작한 것이므로 김포 슈퍼와 동맹을 맺고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11 (바)에서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의 간격이 일백 미터도 채 못 될만큼 가까우며(ㄱ), 김포 슈퍼에서 생활필수품과 부식까지 팔기 시작하면서 두 가게의 취급 품목이 같아졌음(ㄷ)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ㄴ.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가 서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ㄹ. (사)에서 김 반장이 원미동 23통 5반의 반장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나, 반장 직책을 두고 경호네와 서로 경쟁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 12 (사)에 제시된 김 반장에 대한 정보에서 김 반장은 어린 동생들과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까지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고, 23통 5반의 반장 직책을 가지고 있어 동네의 잡다한 사건에 항상 끼여 있으며, 동네의 대변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짐차를 샀다가 사고를 저질러 그 뒷수습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임이 드러난다. 그러나 김 반장이 깔끔한 성격으로 정리정돈을 좋아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13 (사)에서 김 반장은 지난가를 작은 짐차를 샀다가 사고를 저질러 그 뒷수습에 빚까지 얻었을 만큼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물포 주 씨가 김 반장의 행동을 '제 죽을 구명 파는 미련한 짓'이라고 표현한 것은 김 반장이 이렇게 쪼들리는 중에 빚돈을 얻어 쌀과 연탄까지 파는 것은 무리한 일임을 나타낸다.

- 14 이 글에서 형제 슈퍼의 김 반장은 가까운 거리에서 같은 품목의 물건을 팔기 시작한 경호네가 원망스러우면서(㉔) 김포 슈퍼와 경쟁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 몹시 애가 타고(㉕), 경호네에게 손님을 빼앗길까 봐 불안한 심정이다(㉖). 또한 자신의 가게 대신 김포 슈퍼에서 물건을 사는 동네 사람들에게 서운해하며(㉗) 옛정을 봐서 우리 연탄이나 쌀도 팔아 줘야 할 게 아니냐고 말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김 반장이 경호네와 이웃끼리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서글퍼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15 '민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속담은 '잘되리라고 믿고 있던 일이 어긋나거나 믿고 있던 사람이 배반하여 오히려 해를 입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아)에서 이러한 속담과 관련한 상황이 드러나는 문장은, 예상치 못하게 김포 슈퍼를 경쟁 상대로 맞게 된 김 반장의 상황을 드러내는 '김포 쌀 상회가 김포 슈퍼로 도약하여 자신의 목을 조를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이다.

- 16 ㉔은 경호네와 김 반장의 경쟁으로 두 가게의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어느 한 가게에 갈 때마다 다른 가게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음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웃 간의 경쟁으로 중간에서 이득을 보게 된 동네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17 (타)에서 김포 슈퍼가 형제 슈퍼보다 물건의 가격을 낮추어 팔기 시작하면서 두 가게의 가격 인하 경쟁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전까지 생활필수품과 부식, 쌀과 연탄 등 취급하는 품목을 두고 경쟁을 벌였던 두 가게의 갈등이 품목 경쟁에서 가격 경쟁으로 이어지며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8 고흥댁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속담을 변형하여 "고래들이 싸우는 통에 우리 같은 새우들이 먹잘 게 좀 많은가 말여."라고 말하고 있다. 이때 '고래들(㉑)'은 경쟁을 벌이는 형제 슈퍼와 김포 슈퍼를, '새우들(㉒)'은 두 가게의 경쟁을 통해 이익을 챙기는 동네 여자들을 의미한다.

- 19 (거)를 통해 원미동과 같은 신흥 도시에서는 계획적이지 못한 도시 설계, 밀집된 주택 구조를 예상하지 못한 도로망, 기반 시설이 구축되기도 전에 이루어진 입주 정책 등으로 도시 변두리 도시민의 삶의 질이 열악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작품의 배경이 되는 1980년대에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았으므로,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② (거)에서 원미동에서는 아래로는 가게를 내고 위층에 살림집을 올리는 식의 상가 주택이 대유행이었다고 하였으므로, 상가와 주거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유행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거)에서 서울 미용실 옆으로 비어 있는 점포가 서너 개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비어 있는 점포가 없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거)에서 원미동은 언제 상가가 조성될지 불확실한 상황으로 전체적으로 가게들이 모두 형편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으므로, 대도시로 이주해 오는 사람이 늘면서 도시 상권이 활기를 띤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20 진만네가 도매로 떼어다 창고에 쌓아 놓은 싸구려 화장지들(㉑)과, 장사가 되지 않아 빈 점포들(㉒)의 모습을 통해 원미동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ㄱ. 소방 도로는 소방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조성해 놓은 것으로, 원미동 사람들의 생활 형편과 관련 없는 소재이다.  
 ㄴ. 청과물 가게는 과일과 채소를 파는 곳으로, 원미동 사람들의 생활 형편을 짐작할 수 있는 소재라고 볼 수 없다.

**21** (너)에서 싱싱 청과물은 큰길에서 내다보이는 이점이 있는 서울 미용실과 달리, 그 옆쪽으로 앞이나 옆이 모두 공터인 자리에 생긴 점포임을 알 수 있다.

**22** (티)에서 서술자는 싱싱 청과물의 위치가 김포 슈퍼, 형제 슈퍼와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며, 두 가게 사이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싱싱 청과물이 김포 슈퍼, 형제 슈퍼와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23** (터)에서 싱싱 청과물이 개업하여 부식을 팔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된 두 가게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때 경호네와 김 반장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경쟁 상대가 나타났다는 것에 답답하고 암담하며, 고객을 더 빼앗기게 될까 봐 초조하고 걱정스러운 심정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싱싱 청과물의 개업으로 경호네와 김 반장이 기대감을 느꼈다고는 볼 수 없다.

**24** '얹친 데 덮치다'는 '어렵거나 나쁜 일이 겹치어 일어나다.'라는 뜻으로, 김 반장과 김 경호네의 경쟁으로 힘겨운 상황에서 싱싱 청과물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경호네 내외의 상황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귀가 얇다'는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인다.'라는 뜻이다.

② '눈에 밝히다'는 '잊히지 않고 자주 눈에 떠오르다.'라는 뜻이다.

③ '어깨를 견주다'는 '서로 비슷한 지위나 힘을 가지다.'라는 뜻이다.

⑤ '비행기를 태우다'는 '남을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높이 추어올려 주다.'라는 뜻이다.

**25**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가 '휴전 협정(㉠)'을 맺게 된 원인은 새로운 경쟁 상대인 싱싱 청과물의 개업이며, 휴전 협정의 결과 두 가게의 물건값이 같아졌고, 동네 사람들은 어느 집으로 가도 똑같은 가격으로 물건을 사게 되었다.

**26**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의 휴전 협정으로 동네 여자들이 김이 빠진 까닭은, 두 가게의 물건값이 같아지면서 더 이상 물건을 싸게 살 수 없어 전과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27** (서)~(저)에는 원미동에 새로 개업한 싱싱 청과물과 두 가게(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 사이의 갈등이 주로 나타난다.

**28** 동맹을 맺은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의 주된 전략은 가격 인하이다. 두 가게는 싱싱 청과물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한해서만 대폭적으로 가격을 내리기로 하였으며(ㄴ), 그 외의 상품들은 두 가게가 같이 정상 가격으로 환원하여 판매하였다(ㄷ).

**| 오답 풀이 |** ㄱ.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가 싱싱 청과물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한해 물건의 가격을 대폭적으로 내린 것이므로, 모든 품목의 가격을 싱싱 청과물과 동일하게 맞추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ㄴ. 경호네와 김 반장이 싱싱 청과물을 직접 찾아가 부식을 팔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싱싱 청과물은 두 가게의 동맹 전략에 못 이겨 스스로 부식 판매를 중단한 것이다.

**29** (어)에서 싱싱 청과물 사내는 이전에 붙인 쪽지를 떼며 부식과 김 판매를 하지 않기로 하고, 과일만 취급할 것임을 공표하듯이 '과일 도산매'라는 종이쪽지를 붙이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가 동맹을 맺은 보람(㉡)은 싱싱 청과물 사내가 부식과 김 판매를 포기하고 과일만 팔기로 한 것을 의미한다.

**30** (저)에서 동네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동맹의 성과가 있었음에도 싱싱 청과물이 문 닫는 꼴을 보아야겠다는 김 반장의 태도를 악착스럽고 인정머리가 없다고 비난한다. 또한 경호네도 싱싱 청과물이 망하는 모습을 보려고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 오답 풀이 |** ①, ② (서)에서 '한 동네 이웃으로 낮이 익은 그들의 가게에서 싱싱 청과물 쪽을 지켜보고 있을 게 뻔한데 원성을 사 가면서까지 찾아갈 까닭이 무언가.'라고 하였다. 따라서 싱싱 청과물을 딱하게 여겨 가끔 싱싱 청과물에 들러 물건을 사 주거나, 과일은 싱싱 청과물에서 사고 나머지 부식은 김포 슈퍼나 형제 슈퍼에서 구입하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저)를 보면 경호네가 김 반장의 말에 따라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동맹을 맺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옹호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경호 아버지가 김 반장의 등쌀에 동맹 관계를 끝내지 못하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으며, 이를 안타깝게 여기는 의견은 확인할 수 없다.

⑤ 경호네와 김 반장의 눈치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경호네와 김 반장이 싱싱 청과물보다 훨씬 싼값에 물건을 팔았으므로 비싼 값을 지불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31** ㉠에서는 신정 연휴가 사흘이나 된다고 하였고, <보기>를 바탕으로 볼 때 양력설, 즉 신정 연휴가 사흘이었던 기간은 1950~1990년까지이므로 이 소설의 배경이 1990년 이전임을 알 수 있다.

**32** (처)에서 김 반장은 과일을 싱싱 청과물보다 싼 가격에 팔고(㉡), 가격을 흥정하려는 손님들에게 값을 깎아 준다(㉢). 또한 싱싱 청과물에서 물건을 흥정하는 손님이 보이면 핸드 마이크를 들고 횡방을 놓으며(㉤), 자신의 가게와 김포 슈퍼를 선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김 반장이 싱싱 청과물의 장사를 방해하기 위해 동네 사람들의 동정심에 호소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33 경호 아버지는 김 반장과 동맹을 맺고 싱싱 청과물의 장사를 방해하며 “짜게 사서 짜게 파는 것도 죄요?”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이기적이고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경호 아버지가 마음이 여리고 내성적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② 자신의 장사를 방해하는 김 반장에게 쫓아가 반말로 항의하는 부분에서 싱싱 청과물 사내가 치밀하지 못하고 성격이 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김 반장이 싱싱 청과물 사내의 장사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싱싱 청과물 사내와 말싸움을 벌이는 모습에서 싱싱 청과물 사내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경호 아버지는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김 반장과 손을 잡고 싱싱 청과물 사내의 장사를 방해하는 이기적인 면모를 보인다.

⑤ 김 반장은 싱싱 청과물 사내가 부식을 팔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싱싱 청과물이 문을 닫을 때까지 그의 장사를 방해하는 집요한 면모를 보인다.

34 (커)에서 싱싱 청과물 사내가 김 반장에게 쫓아가 그와 말싸움을 벌이는 모습에서 부식과 김을 판매하지 않고 과일만 취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자신의 장사를 방해하는 두 가게의 행동에 화가 나고 억울한 심정이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35 (터)에서 싱싱 청과물 사내가 김 반장과 몸싸움을 한 다음다음 날 리어가 행상으로 팔지 못한 과일을 처분하기 위해 나섰고, (퍼)에서 싱싱 청과물이 문을 연 지 한 달 만에 셔터를 내리고 말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김 반장과 싸운 후 싱싱 청과물 사내가 원미동 내에서 가게를 옮겨 과일을 팔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36 그날의 사건(㉠), 즉 김 반장과 싱싱 청과물 사내의 몸싸움을 본 64번지 새댁은 몸을 사린 경호 아버지가 약아빠졌다고 미워하는 태도를 보였고(㉡), 시내 엄마는 김 반장을 지독하고 잔인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 오답 풀이 | 나. 동네 사람들은 김 반장과 경호 아버지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자신들의 피해 유무와 관련한 반응은 드러내지 않는다.

르. 동네 사람들은 싱싱 청과물 사내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으므로 싱싱 청과물 사내의 행동을 비판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37 (퍼)의 지물포 여자가 ‘다들 먹고살아 보려고 아웅다웅하는 것이니…….’라고 말한 부분에서 가게들 간에 벌어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먹고살기 힘든 현실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8 (히)의 ‘요사이라면 봄이 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에서 계절적 배경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시간의 경과가 드러나며, 앞선 사건이 종결되고 작품의 분위기가 전환될 것임이 드러난다.

39 ‘으악새 할아버지’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앞선 사건(김포 슈퍼, 형제 슈퍼와 싱싱 청과물 사이의 갈등)이 종결되고, 새로운 사건이 시작될 것임을 암시한다.

| 오답 풀이 | ② 으악새 할아버지의 등장은 앞으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과거 회상이 시작됨을 드러낸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으악새 할아버지라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은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전하려는 주제와는 관련이 없다.

④ 으악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봄이 오긴 왔어.’라고 표현했으므로 으악새 할아버지는 계절적 배경이 봄으로 바뀌었음을 드러내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⑤ 으악새 할아버지의 등장은 앞선 사건이 종결되고 새로운 사건이 시작됨을 암시할 뿐, 앞선 사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인물 간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40 (고)에서 동네 여자들의 대화를 통해 으악새 할아버지가 무궁화 연립에서 혼자 살고 있으며(ㄱ), 정갈하여 빨래를 안집보다 자주 하고(ㄴ), ‘으악’ 하는 울음을 쏟아 놓고(ㄷ) 팔굽이나 손뼉을 탁 치는 동작을 반복함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나. (히)에서 “겨우내 뜸하더니만 으악새 울음소리랑 이제 실컷 듣게 생겼군.”이라고 하였으므로, 으악새 할아버지는 겨울 동안에는 나오지 않다가 봄이 되어 다시 나타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ㄴ. (고)에서 으악새 할아버지는 웃음이 아닌 ‘으악’ 하는 울음소리를 쏟아 내는 병을 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 (노)에서 고흥댁이 “싱싱 청과물 가게가 나갔어. 인자 막 계약했네.”라고 하였으므로, 고흥댁의 얼굴이 밝아 보이는 것(㉠)은 부동산 계약이 성사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42 싱싱 청과물 사내의 처지를 동정하며 김 반장을 비난하던 시내 엄마가 ㉡과 같이 말을 바꾼 것은, 자신도 김 반장처럼 같은 업종의 가게와 경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김 반장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43 [A]에 나온 ‘긋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된다’라는 속담은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을 하지 말고 되어 가는 형편을 보고 있다가 이익이나 얻도록 하라는 말.’이다. 또한 고흥댁의 말에서 ‘고래’는 서로 경쟁하는 가게들을, ‘새우들’은 그 사이에서 이익을 보는 동네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물들의 말에서 타인의 경쟁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 이용하는 이기적인 동네 사람들의 태도가 드러난다.

44 ⑧는 작품 속 인물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드러내는 말로, 먹고살기 위해 고민해야 하는 소시민들의 고단한 생활상과 고민거리를 의미한다.

45 결말의 ‘봄별’은 현재 먹고살기 힘든 원미동 사람들의 삶과는 대조되는 분위기를 자아내는 소재로, 원미동 사람들의 삶이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상징한다.

독집해설 예상 문제

본책 34~39쪽

- 01 ⑤ 02 ② 03 같등 04 ② 05 ② 06 (나)에서  
는 두 가게 사이에서 난처해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마)에서는 각자  
의 이익을 챙기는 이해타산적(이기적)인 태도를 보인다. 07 ⑤  
08 ⑤ 09 ④ 10 ④ 11 ③ 12 ④ 13 ②  
14 (1)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경호네와 김 반장) (2) 싱싱 청과물  
의 폐업 15 ③ 16 ⑤ 17 전파상 18 ④ 19 ②  
20 ③ 21 ③ 22 온라인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을 받는 순간에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  
대 사회 속 우리의 모습을 상징한다. 23 ①

01 이 글은 '원미동'이라는 한 동네 안에서 장사를 하는 이웃 가게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서는 작품의 소재, 사건, 인물 등을 통해  
1980년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드러난다.

② 이 글은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쓰여졌으며, 작품 밖의 서  
술자에 의해 이야기가 전달된다.

③, ④ 이 글은 '원미동 23통 5반'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  
을 바탕으로 도시 변두리 소시민의 삶의 모습을 사실적이고 현  
실감 있게 표현한다.

02 형제 슈퍼는 원래 과일이나 야채, 생선을 비롯하여 생활필수  
품을 파는 구멍가게에 불과한 규모의 가게였다. 김포 쌀 상회  
가 김포 슈퍼로 확장 개업하면서 형제 슈퍼도 고객을 빼앗기  
지 않기 위해 쌀과 연탄을 팔기 시작한 것이다.

03 경호네가 김포 쌀 상회에서 김포 슈퍼로 가게를 확장하면서  
쌀과 연탄뿐만 아니라 생활필수품까지 팔기 시작하였고, 이  
에 형제 슈퍼의 김 반장도 쌀과 연탄을 팔기 시작하면서 두 가  
게 간의 '갈등'이 시작될 것을 암시하였다.

04 이 글은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글의 시대적 배  
경을 드러내는 소재는 '옥상마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안테나  
(㉠)'와 당시의 주 연료였던 '연탄(㉡)'이다.

| 오답 풀이 | '영화(㉢)', '생활필수품(㉣)', '입간판(㉤)'은 1980년  
대라는 시대적 배경의 특징을 보여 주는 소재라고 볼 수 없다.

05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의 갈등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가까운 거  
리에서, 같은 품목의 물건을 팔고 있기 때문이며, 근본적으로는  
(나)의 '모두 다 살기 위하여, 어쨌거나 한번 살아 보기 위하여'  
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먹고 살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06 (나)에서 동네 사람들은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 중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해 심란스러워하고 난처해하는 태도를 보  
였으나, (마)에서는 두 가게가 가격 인하 경쟁을 벌이자 이를 자  
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 이용하는 이해타산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보인다.

07 [A]에서 고흥택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속담을  
인용한 후, 이를 "고래들이 싸우는 통에 우리 같은 새우들이  
먹갈 게 좀 많은가 말여."라는 표현으로 변형함으로써 두 가  
게의 경쟁으로 동네 사람들이 이익을 얻게 된 상황을 드러내  
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고흥택은 앞서 자신을 꾸짖는 지물포 여자의 말  
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흐름을 전환하고 있다.

② 고흥택이 지물포 여자의 꾸지람을 들은 후 '듣고 보니 맞는  
소리였다.'라고 했으므로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하고 있다는 내용  
은 적절하지 않으며, [A]에서는 두 가게의 갈등이 동네 사람들에게  
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말하고 있다.

③ 고흥택은 명언이 아닌 속담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이 이익을  
얻게 된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④ 고흥택은 갈등하는 두 가게를 '고래들'에, 동네 사람들을 '새  
우들'에 비유하여, 동네 사람들이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을 표현  
하였다. 따라서 두 가게의 경쟁을 말려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8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가 고객 확보를 위해 가격 인하 경쟁을  
시작하면서 물건 가격을 계속해서 내리며 본전 건지면 천만다  
행인 장사(㉠), 즉 손해 보기 쉬운 장사를 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손님이 늘면서 두 가게 모두 더 많은 이익  
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9 (가)와 (나)에는 언제 상가가 조성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  
황 속에서 장사를 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원미동 사람들의 처  
지가 드러난다. 이를 통해 원미동처럼 신흥 도시의 변두리에  
서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삶의 질이 열악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지난 사오 년 사이의 원미동 23통 거리  
는 상가 주택이 대유행이었다고 하였으므로, 상가보다 단독 주  
택이 많은 동네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나)에서 서울 미용실 옆부터는 무엇을 벌여도 밀천 잘라먹기  
가 예사인, 즉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점포들이었다고 하였으  
므로,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가게는 없는 상황이라는 내용은 적  
절하지 않다.

③ (가)에서 상가가 언제 조성될지 알 수 없는 원미동의 불확실  
한 상황이 나타나므로, 원미동의 지리적 위치가 좋아 앞으로 더  
발전할 예정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⑤ (나)에서 서울 미용실 옆으로는 많은 종류의 가게들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다고 하였으므로, 장사가 안 되어도 가게를 접  
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0 싱싱 청과물이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의 휴전 협정에 반발하  
는 모습은 (다)~(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다)~(마)에는 싱  
싱 청과물이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의 가운데 지점에 개입하  
여 두 가게와 같은 품목을 취급하기 시작하고, 이에 대응하여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가 휴전 협정을 맺고 싱싱 청과물을 물  
아내기 위해 동맹을 맺는 모습이 드러난다.

11 (라)에서 동네 여자들은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가 휴전 협정을 맺고 두 집의 물건값이 같아지자, 더 이상 두 슈퍼가 경쟁했을 때와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아쉬워하는 태도를 보인다.

12 (라)에서 김 반장과 의 몸싸움 이후 결국 문을 닫는 싱싱 청과물 사내의 처지를 동네 여자들이 안타깝게 여기는 모습은 드러나지만, 싱싱 청과물 사내가 과일을 처분하는 것을 돕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13 (나)에서 과일이나 부식은 경호네나 김 반장의 가게가 훨씬 값이 싸고(ㄷ), 한 동네 이웃으로 지내 온 경호네와 김 반장에게 원성을 사 가면서까지 싱싱 청과물을 찾아갈 이유가 없으므로(ㄱ) 원미동 여자들이 싱싱 청과물을 이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나. 원미동 여자들이 싱싱 청과물 사내를 한 동네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원미동 여자들은 싱싱 청과물의 폐업을 안타까워했다.

ㄹ.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에서 사는 과일이나 부식의 값이 더 싸서 싱싱 청과물을 이용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므로, 신선도가 떨어져서 싱싱 청과물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4 (라)의 ‘동맹자들(㉠)’은 싱싱 청과물의 개업에 대응하여 서로 동맹을 맺고 싱싱 청과물을 몰아내려 한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를 의미하며, 동맹의 ‘목적(㉡)’은 경쟁 상대인 싱싱 청과물의 폐업이라고 볼 수 있다.

15 [A]에서 시내 엄마는 김포 슈퍼, 형제 슈퍼와 갈등한 끝에 가게를 접고 떠나는 싱싱 청과물 사내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며 ‘그것 것 같이 좀 먹고살면 어쩌서.’라고 말한다. 이러한 시내 엄마의 말에는 먹고살기 힘든 현실 속에서 이웃 간에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며 원만하게 살아야 한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16 (가)~(다)에는 싱싱 청과물이 떠난 자리에 새로 전파상이 들어오면서 같은 업종의 가게와 경쟁할 처지에 놓인 시내 엄마의 상황이 드러난다. (다)에서 시내 엄마는 “똑같은 장사를 벌여 놓았다가는 결국 두 집 다 망하고 말걸요.”라고 말하며 한 동네에 같은 업종의 가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시내 엄마가 새로 들어오는 전파상과 같이 먹고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7 ‘전파상’은 ‘전자 기기 제품을 팔거나 수리하는 가게. 또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으로, 현재보다 1980년대에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가게의 종류이다. 또한 새로운 전파상의 등장은 기존에 원미동에서 전파상을 운영하고 있던 시내네와의 경쟁을 암시한다. 따라서 시대적 배경인 1980년대를 드러내면서 새로운 갈등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소재는 ‘전파상’이다.

18 원미동 사람들이 장삿길로만 빠지는 것은 먹고살기 어려운 원미동의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왜들 이렇게 장삿길로만 빠지는지 몰라.”라는 정육점 여자의 질문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원미동 사람들의 처지를 고려하였을 때 답이 뻔한 질문이므로 ‘우문’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 고흥댁이 원미동 사람들이 장삿길로만 빠지는 까닭에 관해 말해 주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①은 원미동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묻는 질문이므로, 이웃 간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 없다.

③ ①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원미동 사람들의 처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정육점 여자는 시내 엄마를 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삿길로 빠져 서로 갈등하는 원미동 사람들의 힘든 현실에 대한 한탄과 안타까움을 담아 ①과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이다.

19 ㉠은 원미동 사람들의 고단하고 어려운 삶의 모습과 대조되는 분위기를 자아내는 부분으로, 원미동 사람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상징한다. 따라서 ㉠이 인물들의 고단한 삶을 대변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20 (나)에서 지혜는 준영과 친하지 않다고 말하는 빛나라에게 “누가 친해서 태그하나? 하트 받으려고 하는 거지.”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부분에서 지혜가 친분과 관계없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 인지도가 높은 친구의 계정에 태그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혜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친한 친구들만 태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21 (가)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와 소통한 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같은 매체에서 서로 잘 모르는 사람과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음(ㄴ)을 알 수 있다. 또한 ‘하트가 빛나는 순간 우리도 빛나니까!’, “에스엔에스(SNS)도 스펙이지”라는 부분에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받는 관심의 정도로 개인의 가치를 판단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ㄷ)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ㄱ. (나)에 친구들이 학교에서 대면으로 소통하는 장면이 나타나므로 온라인 소통이 보편적 일상이 되어 대면 소통이 사라졌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ㄹ. (나)에서 빛나라는 온라인상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관중 같아.”라고 말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위를 모든 구성원이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22 ‘하트가 빛나는 순간’에서 ‘하트’는 온라인 세상에서 받는 관심을 상징한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은 온라인 세상에서 하트가 빛나는 순간, 즉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같은 매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순간에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대 사회 속 우리의 모습을 상징한다.

23 우리의 가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다른 사람에게 받는 관심의 정도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은 독자의 깨달음으로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속 하트에 만 엄매이지 말고 스스로 충분히 가치 있고 빛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이 적절하다.

고난도 **입** 심화 문제

본책 40~41쪽

01 ③ 02 ② 03 ⑤ 04 경호네와 김 반장이 싱싱 청과물을 몰아내기 위해 전략을 세우면서 싱싱 청과물 사내는 장사를 방해받아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05 ① 06 디지털 세상(온라인 공간) 속에서 사람들에게 받는 관심과 애정을 의미한다. 07 ⑤

01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갈등 양상이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의 갈등에서 기존의 두 가게(김포 슈퍼, 형제 슈퍼)와 싱싱 청과물 사이의 갈등으로 달라진다(ㄱ). 또한 같은 동네에 있는 이웃 가게들 간의 갈등을 통해 이익을 얻으며 좋아하기도 하고, 먹고살기 어려운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하는 동네 사람들의 미묘한 심리가 잘 드러나며(ㄴ), ‘연탄’, ‘쌀 상회’ 등 작품의 소재 및 사건, 인물 등을 통해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드러난다(ㄷ).

**| 오답 풀이 |** ㄴ. 이 작품은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으로, 1980년대 도시 소시민의 삶의 모습을 그려 내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ㄷ. 이 작품은 허구의 소설로,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사실성을 높이고 있으나, 실제 존재했던 인물을 등장시켰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2 ㉠에는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의 경쟁으로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된 동네 여자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러한 동네 여자들의 상황에 적절한 한자 성어는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서로 싸우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애쓰지 않고 가로챈 이익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의 ‘어부지리’가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전전긍긍’은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이라는 뜻이다.

③ ‘설상가상’은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 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다.

④ ‘과유불급’은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 중용(中庸)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다.

⑤ ‘칠전팔기’는 ‘일곱 번 넘어지고 여덟 번 일어난다는 뜻으로, 여러 번 실패하여도 굴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노력함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다.

03 ㉡에서 원미동 여자들이 각자 심란한 표정을 지은 것은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새댁의 말을 듣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살아 내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댁의 처지를 동정하는 태도가 드러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4 (라)에는 싱싱 청과물을 몰아내기 위해 휴전 조약뿐만 아니라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의 모습이 드러나며, (마)에는 김 반장에게 쫓아가 항의하는 싱싱 청과물 사내의 모습이 드러난다. 따라서 (라)와 (마) 사이에는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가 손을 잡고 싱싱 청과물의 장사를 방해하는 전략을 세워 실천하고, 이로 인해 싱싱 청과물 사내가 장사에 어려움을 겪는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싱싱 청과물 사내가 처한 상황을 밝혔다.                    | <input type="checkbox"/>               |
| 싱싱 청과물 사내가 두 가게로부터 장사를 방해받았다는 내용을 바르게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5 이 글에는 먹고살기 힘든 현실에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이웃 간에 갈등하는 인물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는 이해와 공존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06 이 글에서 인물들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팔로워를 늘리거나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 노력하며, ‘하트가 빛나는 순간 우리도 빛’난다고 표현한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하트(㉠)’는 디지털 세상(온라인 공간)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관심과 애정을 의미한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하트’가 디지털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받는 관심과 애정을 의미한다는 내용을 바르게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7 (나)의 지혜와 서우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다른 사람의 관심과 애정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가 스펙, 즉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지혜와 서우의 생각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속 다른 사람의 애정이나 관심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조언이 적절하다.

## 02 공감하고 조정하는 대화

### 활동 학습

본책 44~55쪽

1 ② 2 ① 3 ④ 4 친구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더욱 심화될 것이다. 5 ③ 6 요약하기 및 재구성하기 7 ② 8 민재는 자신의 감정이나 바라는 바를 진솔하게 말하지 않은 채로 대화를 끝내고 있다. 9 ③ 10 ⑤ 11 ⑤ 12 ⑤ 13 ⑤ 14 ① 15 ④ 16 ⑤ 17 친구들이 민재가 느낀 감정을 명확하게 알게 되어 갈등이 악화되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18 ④ 19 ⑤ 20 ② 21 (1) 네가 다른 친구들도 같이 있는 데에서 화를 내서 (2) 둘만 있을 때 따로 이야기해 주길 바랐거든

- 직접 자른 앞머리가 어쩔지 물어보는 민재의 질문에 건우와 하리는 민재의 앞머리를 보고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민재에게 앞머리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건우와 하리의 반응은 민재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상대의 감정이나 입장을 배려하며 말해야 한다는 조언이 적절하다.
- 직접 자른 앞머리를 보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장난스럽게 말하는 친구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민재는 서운함을 느낀다.
- 친구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기분이 상한 민재는 친구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갑자기 단체 대화방에서 나간 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친구들의 반응에 속상하고 우울하다며 게시 글을 올린다. 또한 건우와 하리의 사과를 받지 않고 차갑게 반응한다. 즉, 민재는 친구들과의 갈등 상황에 간접적으로 대응하거나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므로 친구들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이 느낀 감정을 전달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민재는 갈등 상황에 관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진솔하게 표현하지 않고 간접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민재의 태도로 인해 친구들과 민재 사이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더욱 심화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하리는 사과를 했음에도 차갑게 반응하는 민재의 태도에 기분이 상해 민재를 비난하고 탓하며, 더 이상 민재를 이해하거나 민재와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하리가 상대에게 바라는 점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하리는 “우리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잖아.”라며 민재의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  
②, ④ 하리는 “아침부터 민재 때문에 기분만 상했어.”라고 말하며 민재를 탓하고, 민재로 인해 생긴 부정적인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⑤ 하리는 “난 이제 개랑 더 대화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며 더 이상 민재를 이해하거나 민재와의 갈등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A]에서 세아는 건우가 한 말인 “오늘 만나자마자 사과하긴 했는데 아직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서 걱정이야. 민재 기분이 계속 안 풀리면 어떡하지? 민재가 또 쌀쌀맞게 대할까 봐 말을 못 걸겠어.”에 담긴 의도를 이해하고 건우의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하여 다시 말하고 있다. 이는 공감하는 대화의 방법 중 상대의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하고 재구성하는 ‘요약하기 및 재구성하기’에 해당한다.

- 건우는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의 내용 요소에 맞추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나는 우리가 언제든 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사이이길 바라거든.”이라고 말한 것은 상황에 관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건우의 말 중,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한 부분은 “우리가 네 기분을 배려하며 말하지 않아서 네가 서운했을 것 같아.”이다.

③ 건우의 말 중, 상황에 대해 자신이 느낀 감정을 표현한 부분은 “당황스럽고 속상하더라고.”이다.

④ 건우의 말 중, 상대에게 바라는 바를 구체적으로 요청한 부분은 “앞으로는 네 마음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주면 좋겠어.”이다.

⑤ 건우의 말 중,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한 부분은 “그런데 네가 갑자기 대화방을 나가서”이다.

- 민재는 말도 없이 대화방을 나간 자신의 행동이 심했던 것 같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건우와 하리의 말을 듣고 자신이 어떤 감정이 들었고, 앞으로 친구들이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는지 등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진솔하게 말하지 않은 채로 대화를 끝내고 있다. 이는 민재와 친구들 사이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원인이 된다.

- 세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건우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부분(ㄴ)에서 공감하는 대화의 방법 중 ‘집중하기’가 사용되었고,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라고 말하며 건우가 말을 이어 가도록 유도하는 부분(ㄷ)에서 공감하는 대화의 방법 중 ‘적려하기’가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ㄱ. 세아는 건우의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하여 다시 말하면서 건우의 말에 담긴 의도를 이해하고 건우의 감정이나 입장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세아가 건우의 문제점을 요약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안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ㄴ. 세아가 건우의 경험과 비슷한, 동생과 닮았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 것은 맞으나 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므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건우의 대화 방법을 평가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세아는 공감하는 대화의 방법을 활용하여 건우의 고민을 들어주고 있다. 이를 통해 건우와 세아는 서로 신뢰감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대화를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다. 만화에서 공감하는 대화의 방법을 활용하여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사람은 세아이므로, 세아가 건우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

- 11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만 앞세우면 상대를 탓하기 쉬우므로 감정을 앞세우지 말라는 설명은 적절하나, 간접적으로 대응하면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진솔하게 표현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12 ㉠은 갈등 상황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상대의 태도를 비난하지만, ㉡은 갈등 상황에서 상대가 느꼈을 감정과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오답 풀이 |** ㉠ ㉠이 상대의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만, ㉠에서 상대의 태도를 칭찬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 ㉡은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은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며 더 이상 상대와 대화를 하려 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 ㉣은 기분이 상했다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고, ㉤은 상대에게 미안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13 갈등을 악화시키는 표현에는 상대를 비난하거나 탓하고, 상대로 인해 생긴 부정적인 정서를 강조하는 말 등이 해당한다. “네가 약속 시간보다 늦게 도착해서 버스를 놓칠까 봐 걱정스러웠어.”는 객관적인 상황을 전달하며 그때 자신이 느낀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말이므로, 갈등을 악화시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 14 건우의 말 중 “네가 갑자기 대화방을 나가서”라는 부분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기(ㄱ)’에 해당하며, “나도 당황스럽고 속상하더라고.”라는 부분은 그 상황에서 ‘자신이 느낀 감정을 표현하기(ㄴ)’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ㄷ, ㄹ. 건우의 말 중에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거나 상대에게 바라는 바를 요청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15 민재는 갈등 상황에 관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진솔하게 표현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대응하며, 친구들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대화를 요청해도 소극적으로 반응한다. 이러한 민재의 태도는 친구들과 민재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므로, 민재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갈등 상황에 간접적으로 대응하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16 <보기>에서 ㉠은 상황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진솔하게 표현한 부분에 해당하며, ㉡은 상대에게 바라는 바를 구체적으로 요청한 부분에 해당한다.
- 17 친구들이 자신의 앞머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 민재가 “너희가 내 앞머리를 보고 짧게 자른 것이 별로이고, 나한테 안 어울린다고 해서 내 기분이 서운하고 우울해.”와 같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면서 자신이 느낀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했다면, 친구들이 민재가 느낀 감정을 명확하게 알게 되어 갈등이 악화되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 18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는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과 바라는 바를 진솔하게 표현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로, 자신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내용은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의 효과로 적절하지 않다.
- 19 우주와 현서는 서로 성격도 다르고 발표를 준비하는 방식도 다르다. 이때, 두 사람이 서로 배려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발표를 준비하려고 하면서 갈등이 생긴 것이다.  
**| 오답 풀이 |** ㉠ 우주가 현서의 성격이 외향적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상대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두 사람이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현서는 다른 친구들과 잠시 밖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며, 우주가 아닌 다른 친구들과 발표를 준비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 발표 준비를 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현서를 본 우주는 기분이 상해서 다른 친구들 앞에서 현서에게 책임감이 없다고 말한다. 즉, 우주가 다른 친구들 앞에서 현서에게 비난하는 말을 한 것은 맞으나, 현서 몰래 다른 친구들에게 현서를 비난하는 말을 한 것은 아니다.
- 20 제시된 우주의 말에서 갈등이 일어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우주는 현서의 말을 자신의 말로 다시 요약하면서 현서의 입장에 공감하고, 자신이 현서에게 바라는 바를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 21 제시된 말을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로 고쳐 쓰기 위해서는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그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진솔하게 표현해야 한다. 또한 상대를 탓하는 말은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에는 객관적인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인 “네가 다른 친구들도 같이 있는데 화를 내서”가, ㉡에는 욕구를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인 “돌만 있을 때 따로 이야기해 주길 바랐거든”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독집해 썩 예상 문제

본책 56~59쪽

- 01 ㉡ 02 ㉤ 03 민재는 친구들의 사과를 받지 않고, 차갑게 반응하는 등 갈등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04 ㉤ 05 ㉡ 06 ㉣ 07 ㉠, ㉡은 소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하고, ㉢, ㉣은 적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한다. 08 ㉤ 09 ㉣ 10 ㉣ 11 감정, 바라는 바 12 ㉡ 13 ㉡ 14 ㉢ 15 ㉤ 16 ㉣ 17 ㉤

- 01 (가)에서 민재는 스스로 자른 앞머리가 어색해서 친구들에게 의견을 묻는다. 이때 건우와 하리는 크게 웃으며 민재의 앞머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는 민재가 느낄 서운함, 우울함 등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행동으로, 이후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 02 민재는 아침에 건우, 하리와 대화한 후에 계속 기분이 상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친구들이 민재의 서운한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장난스럽게 반응하고, 이에 속상함을 느끼고 화가 난 민재가 단체 대화방에서 아무 말 없이 나간 것이다.
- 03 ㉠에서 민재는 먼저 사과를 건네는 건우, 하리에게 차갑게 반응하며 두 친구의 사과도 받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감정이나 입장을 설명하지 않고, 갈등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04 (나)에서 민재는 친구들의 사과에 차갑게 반응하며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나) 이후에도 민재와 친구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 | 오답 풀이 |** ① (나)에서 민재가 친구들의 사과를 받아 주지 않고 차갑게 반응하면서 민재와 친구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지 않으므로, 민재와 친구들 간에 유대감이 형성될 것이라는 추측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나)에서 민재는 친구들의 사과를 받아 주지 않고 자신이 친구들에게 바라는 바 역시 전달하지 않고 있으므로, 건우와 하리가 민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은 적절하지 않다.
- ③ (나)에서 민재는 친구들의 말을 더 듣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민재가 건우, 하리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추측은 적절하지 않다.
- ④ (나)에서 민재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갈등 상황에서 느낀 감정이나 자신의 입장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우와 하리가 민재의 감정이나 입장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은 적절하지 않다.
- 05 하리는 자신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민재의 태도를 비난하면서 민재를 탓하는 말을 한다. 또한 더 이상 민재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이는 상대를 이해하거나 갈등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 태도이므로 갈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하리는 민재의 기분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라 민재와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으려 하는 등 갈등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 06 세아의 대화 방법은 '공감하는 대화'에 해당한다. 자신이 바라는 바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은 공감하는 대화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에 해당한다.
- 07 ㉠은 고개를 끄덕이는 몸짓을 통해 상대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집중하기' 방법이며, ㉡은 상대가 말을 이어가도록 격려하는 '격려하기' 방법으로, ㉠과 ㉡은 공감하는

대화의 방법 중 소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한다. ㉢은 상대가 말한 의도를 이해하여 자신의 말로 요약하고 재구성하는 '요약하기 및 재구성하기' 방법이며, ㉣은 상대의 경험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경험 공유하기' 방법으로, ㉢과 ㉣은 공감하는 대화의 방법 중 적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한다.

- 08 세아는 건우와의 대화에서 '공감하는 대화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건우는 세아와 대화를 원활하게 이어 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세아에 대한 신뢰감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아가 갈등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 주지는 않았으므로 세아와의 대화가 갈등을 즉시 해결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 09 세아가 <보기>와 같이 말했다면 건우는 세아가 자신의 말에 진심으로 공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서운하고 속상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며, 이는 두 사람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10 건우는 민재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면서 상황에 대해 자신이 느낀 감정과 욕구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건우가 갈등 상황을 대하는 민재의 행동을 평가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
- 11 건우는 민재와의 갈등 상황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란,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과 '바라는 바(욕구)'를 진솔하게 표현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이다.
- 12 민재는 건우의 말을 듣고 자신의 행동이 심했던 것 같다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건우에게 갈등 상황에서 자신이 느낀 감정이나 자신이 바라는 바를 구체적으로 털어놓지는 않고 있다.
- | 오답 풀이 |** ① 민재는 건우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바라는 바 등을 표현하지 않으며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 ③ 민재는 먼저 다가와 이야기를 하자는 건우의 제안에 "뭘, 무슨 이야기?"라고 싸늘하게 반응하며 내키지 않아 하는 태도를 보인다.
- ④ 만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대화가 끝난 후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며 후련해하는 건우와 달리, 민재는 찡찡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 ⑤ 민재는 건우의 말을 듣고, "말도 없이 대화방을 나가 버린 건 내가 심했던 것 같아."라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이 심했던 것을 인정하고 있다.
- 13 건우는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를 하면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ㄱ)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상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ㄴ).

**| 오답 풀이 |** ㄴ. 갈등 상황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의 효과로 적절하지 않다.

ㄷ.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는 상대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화이므로, 상대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은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의 효과로 볼 수 없다.

- 14** ㉠에는 상대와의 대화에서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에 맞게 고쳐 쓰기 위해서는 상대를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고, 갈등 상황에서 자신이 바라는 바를 진솔하게 표현한 “나는 너희가 내 상황이나 감정을 배려하며 말해 주길 바랐어.”라는 내용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⑤ 상대를 탓하거나 갈등의 원인을 무조건 상대의 책임으로 돌리는 표현은 갈등을 악화시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지양해야 한다.

② 상대의 잘못을 비난하는 것은 갈등을 악화시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대화방을 나가는 행동으로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는 것은 갈등 상황에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 15** 제시된 대화에서 누리는 오늘 자신이 우울해서 빵을 샀다고 말한다. 이때 현준이가 ‘우울하다’라는 감정 대신 빵을 샀다는 사실에 더 관심을 가지며 누리의 감정에 관심을 갖거나 공감해 주지 않아서 누리의 마음이 상한 것이다.

- 16** ㉠은 우주가 현서의 말을 자신의 말로 다시 요약하며 질문한 부분이므로, 현서가 자신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바를 추측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7** ‘(눈을 맞추며)’는 공감하는 대화의 방법 중 소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하는 ‘집중하기’의 방법이다. 또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따로 만나서 지금처럼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어.”라는 말은 갈등 상황에서 상대에게 바라는 바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으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탓하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우주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현서의 말로는 ⑤가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네가 그때 그렇게 화를 낸 건 심했어”라는 말은 갈등 상황에서 상대의 태도를 탓하고 비난하는 표현이므로, 갈등을 악화시키는 표현에 해당한다.

② “너는 항상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게 문제야”라는 말은 상대의 태도를 비난하는 표현이므로, 갈등을 악화시키는 표현에 해당한다.

③ “너 때문에 다른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해서 부끄러웠어”라는 말은 상대를 탓하고 상대로 인해 생긴 부정적인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이므로, 갈등을 악화시키는 표현에 해당한다. 또한 한숨을 쉬는 행동은 공감하는 대화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너랑 같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나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라는 말은 상대를 탓하며 상대로 인해 생긴 부정적인 정서나 상황을 강조하는 표현이므로, 갈등을 악화시키는 표현에 해당한다.

## 고난도 읽 심화문제

본책 60~61쪽

- 01** ⑤ **02** “너희가 내 앞머리를 보고 짧게 자른 것이 별로이고, 나한테 안 어울린다고 해서 내 기분이 서운하고 우울해.” **03** ④ **04** ③ **05** 세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건우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집중하기’ 방법과,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와 같이 건우가 말을 이어 가도록 유도하는 ‘격려하기’ 방법을 사용하였다. **06** ⑤

- 01** (가)에서는 건우, 하리가 민재의 앞머리를 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친구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 (나)에서 건우, 하리는 민재에게 사과를 건네지만 민재가 이에 대해 차갑게 반응하며 사과를 받아 주지 않으면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 02** <보기>의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의 내용 요소를 포함하여 제시된 민재의 말을 고쳐 쓰면, 먼저 “너희가 내 앞머리를 보고 짧게 자른 것이 별로이고, 나한테 안 어울린다고 해서”라고 말하면서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상황을 전달하고, “내 기분이 서운하고 우울해.”라고 말하면서 그 상황에서 자신이 느낀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객관적 상황을 전달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자신이 느낀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대화 형식에 맞게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03** (나)에서 민재는 단체 대화방을 말도 없이 나가거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 글을 올리는 등 간접적으로 갈등 상황에 대응하고, 친구들과의 대화에도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심화되는 원인이 되므로 친구들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 당사자인 친구들과 진솔하게 서로의 감정과 바라는 바를 털어놓는 대화를 나누어야 하므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친구와 얘기해 보라는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

- 04** (가)에서 하리는 민재의 태도를 비난하고 탓하며 민재로 인해 생긴 부정적인 정서를 강조하는 등 갈등을 악화시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하리에게는 자신의 감정만 앞세우거나 상대를 탓하지 말고(ㄴ), 민재가 느꼈을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태도(ㄷ)가 필요하다.

**| 오답 풀이 |** ㄱ.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진솔하게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직설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대와의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ㄷ. 상대의 잘못을 비난하는 태도는 갈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지양해야 한다.

ㄹ. 상대와 대화를 중단하고 거리를 두는 등의 행동은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태도로, 갈등 해결을 어렵게 하므로 하리에게 필요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

- 05 (가)에서 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건우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집중하기’ 방법과,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와 같이 건우가 말을 이어 가도록 유도하는 ‘격려하기’ 방법을 사용하였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소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하는 두 가지 대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06 <보기>에는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의 내용 요소 중 ‘갈등을 발생하게 한 차이(원인) 분석’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나)에서 건우의 말 중 민재와 자신 사이의 갈등을 발생하게 한 원인에 대해 언급한 것은 “우리가 네 기분을 배려하며 말하지 않아서 네가 서운했을 것 같아.”이다.

#### 대단원 평가문제

본책 62~67쪽

- 01 ③ 02 ① 03 ⑤ 04 ① 05 참 답답한 노릇이었다. 06 ② 07 ② 08 ① 09 새로운 전파상의 등장 예고 전에는 이웃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며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새로운 전파상의 등장 예고 후에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보인다. 10 ② 11 ⑤ 12 ① 13 ⑤ 14 ② 15 ⑤ 16 ③ 17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을 거야. 18 ⑤ 19 ⑤ 20 ③

- 01 (나)에서 형제 슈퍼에 대해 ‘생활필수품들을 파는 구멍가게에 불과한 규모’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형제 슈퍼가 규모가 큰 참고형 가게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2 이 글은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때 1980년대의 주 연료를 알 수 있는 소재는 ‘연탄’이다. 이 소설 속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에서 ‘연탄’을 판매하는 모습을 통해 1980년대에는 집집마다 연탄을 태어 생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03 ‘이판사판’은 ‘막다른 데 이르러 어찌할 수 없게 된 지경.’을 뜻한다. 이 소설에서 ‘이판사판(㉠)’은 경쟁이 과열되면서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손해를 보더라도 물건 가격을 더 낮추고 저울 눈금을 후하게 달아 주는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의 상황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04 제시된 내용은 1980년대에 신흥 도시임에도 계획적이지 못한 도시 설계 등으로 도시 변두리 소시민의 삶의 질이 열악했던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상황이 드러나는 문단은 (가)로, (가)에는 시청을 끼고 있으나 어느 세월에 상가가 조성될지 알 수 없어 미래가 불확실한 원미동의 상황이 드러난다.

- 05 (나)에서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는 문장은 ‘참 답답한 노릇이었다.’이다. 서술자는 이제 막 이사를 온 싱싱 청과물의 주인 사내가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 사이의 갈등 관계를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중간 위치에서 동일한 품목을 판매하는 상황을 보고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06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가 가격 경쟁을 벌일 때에는 동네 여자들이 가격을 비교해서 물건을 조금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었다. 또한 내심 새로운 경쟁 상대의 등장으로 물건의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었는데, 두 가게가 휴전 협정을 맺으면서 동네 여자들은 기대한 만큼의 이익을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네 여자들의 속마음으로는 더 이상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없어 아쉬워하는 것이 적절하다.

- 07 (마)에서는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가 동맹을 맺고 싱싱 청과물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한해서만 대폭적으로 가격을 내리고 그 외의 상품들은 정상 가격으로 판매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또한 완도 김을 입하한 싱싱 청과물에 대응하여 김 반장이 위도 김을 들여와 산지 가격으로 나누어 주며, 경호 아버지가 서울의 청과물 도매 시장에서 들여온 사과와 귤을 싼값에 판매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때 두 가게는 모두 싱싱 청과물에서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두 가게가 싱싱 청과물에서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품목을 찾아 판매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08 이 글은 1980년대 먹고살기 힘든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도시 변두리 소시민들의 삶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또한 (다)의 고흥댁의 말과 같이 등장인물이 사용하는 사투리를 그대로 제시하여 현장감과 생동감을 주고 있다(㉢).

**오답 풀이** ㄷ. 이 글은 도시 변두리 동네에서 벌어지는 이웃 가게 간의 경쟁과 갈등을 주요 소재로 한다. 재개발과 관련된 사건은 나타나지 않는다.

ㄹ. 이 글은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는 제삼자이므로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내세워 어른들의 세계를 비판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9 (나)에서 시내 엄마는 먹고살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이웃의 모습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웃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며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전파상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 (라)에서는 자신에게도 동일한 업종의 경쟁 상대가 생기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보인다.

10 (라)에서 동네 사람들은 앞으로 김 반장과 경호네가 다시 경쟁할지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상싱 청과물 사내가 떠난 후에 김 반장과 경호네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두 가게가 다시 경쟁하게 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1 이 글의 주제는 '도시 변두리 동네의 이웃 간에 벌어지는 갈등과 이해'로,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이해와 공존의 원리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을 읽고 글의 주제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을 갖기로 했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김 반장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지독하고 잔인하게 행동하는 인물로 평가되며, 상싱 청과물 사내를 몰아내기 위해 집요하게 장사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이 글을 읽고 김 반장의 따뜻한 마음을 본받고 싶어졌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이 글은 매일 먹고사는 일을 고민해야 하는 고단한 원미동 사람들의 삶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삶의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에는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이 글은 이웃 가게 간의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지녀야 할 이해와 공존의 원리를 다루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태도를 갖추기로 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④ 원미동 사람들은 이웃의 일에 관심이 많으며 이웃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원미동 사람들이 이웃과 교류가 없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12 이 글에서 빛나라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 친하지 않은 친구를 태그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빛나라가 떠올릴 생각으로 인터넷상에서 친분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3 이 글에서 '하트(♡)'는 인터넷상에서 받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을 상징한다. 본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하트'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과 공감을 돕는 하나의 장치였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주객전도되어 더 많은 수의 '하트'를 받는 것이 소통의 주된 목적이 되었다.

14 (가)에서 민재는 미용실에 가기가 귀찮아서 집에서 스스로 앞머리를 자른다. 다음 날 민재의 앞머리에 대해 건우와 하리가

웃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민재는 속상해한다. (나)에서 건우와 하리가 민재에게 사과를 하지만, 민재는 친구들의 사과를 받지 않고 차갑게 반응한다.

15 이 만화에서는 건우와 하리가 민재의 감정이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말하면서 갈등이 일어나므로, 등장인물 사이에 '공감하는 대화'가 필요하다. 공감하는 대화는 상대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상대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대화이다.

16 (가)에서 건우와 하리는 민재의 기분이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채 민재의 앞머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했다. 이러한 태도가 갈등의 원인임을 고려할 때, 급훈으로 적절한 것은 '배려와 공감은 기본이다.'이다.

17 (가), (나)에서 민재는 자신의 감정이나 친구들에게 바라는 바를 진솔하게 표현하지 않고 갈등 상황에 간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이 되므로, 민재에게 갈등 상황에 대해 자신이 느낀 감정과 바라는 바를 진솔하게 털어놓으면 친구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할 수 있다.

18 만화에서 하리는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 민재를 비난한다. 반면, 건우는 민재의 입장을 헤아리고 먼저 대화를 요청하는 등 민재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오답 풀이 |** ① 하리는 민재의 태도를 비난하고 있으나, 건우가 민재를 비난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건우는 (나)에서 민재에게 대화를 요청하며 갈등 상황에서 자신이 느낀 감정과 욕구를 진솔하게 표현하지만, 하리는 민재의 태도를 비난하기만 할 뿐, 더 이상 민재와 대화하지 않는다.

③ 하리가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 민재를 비난하는 것은 맞지만, 건우가 민재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건우는 민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다.

④ 민재의 기분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건우이며, 하리는 민재를 탓하며 더 이상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19 (가)에서 세아는 공감하는 대화의 방법을 활용하여 건우의 이야기를 들어 준다. 이때 세아가 건우의 상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은 나타나지만, 건우에게 자신의 조언대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20 (나)에서 건우는 민재에게 먼저 다가가서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이때 건우는 "우리가 네 기분을 배려하며 말하지 않아서 네가 서운했을 것 같아."라며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네가 갑자기 대화방을 나가서"라고 말하며 갈등이 일어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건우가 상황을 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2 빛나는 우리 말글살이

### 01 한글의 원리와 가치

#### 활동 학습

본책 72~85쪽

1 ⑤ 2 ④ 3 ③ 4 ② 5 상형의 원리, 가획의 원리 6 ④ 7 ③ 8 ② 9 ㅈ 10 ④ 11 ③ 12 기본자만 익히면 글자를 조합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13 ③ 14 모음의 기본자 'ㅣ'와 '·'를 결합하여 만든 초출자 'ㅏ'에 '·'를 다시 더하여 'ㅑ'를 만든다. 15 ③ 16 모음자 'ㅜ'와 'ㅠ'는 모두 합성의 원리로 만드는데, 'ㅜ'는 기본자를 한 번만 합하여 만드는 반면에 'ㅠ'는 기본자를 두 번 더하여 만든다. 17 ② 18 글자를 읽기 쉽고, 글자가 지닌 뜻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19 ③ 20 ⑤ 21 ③ 22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로 발음되어 문자와 소리가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이다. 23 ②

- 1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 양반들이 주로 한자를 사용한 것은 맞으나, 우리말과 한자는 말소리와 문장 구조가 다르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2 우리말과 중국 말(한자)이 다름을 인식하고 우리만의 고유한 문자의 필요성을 느끼는 데에서 '자주정신'을, 한자를 배울 기회가 없으니 문자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을 가엾게 여기는 데에서 '애민 정신'을, 누구나 쉽게 익혀서 편하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한 데에서 '실용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 3 ㉠의 '새로운 세상을 열 문자'는 훈민정음, 즉 한글을 가리킨다. 한글은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고유한 문자로, 백성에게 한자를 쉽게 가르치기 위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
- 4 기본자에 획을 하나씩 더하여 만든 자음자 중, 획을 하나씩 더할수록 소리가 더 세지는 특성이 있는 것은 '가획자'이다. 이와 달리 자음의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으나, 더해진 획이 소리가 세진다는 의미를 갖지 않는 글자도 있는데, 이를 따로 '이체자'라고 한다.
- 5 자음자의 창제 원리에는 'ㄱ, ㄴ, ㄷ, ㄱ, ㅇ'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기본자를 만드는 '상형의 원리'와 'ㅋ, ㆁ, ㅌ, ㅍ, ㅎ' 등과 같이 기본자에 획을 하나씩 더하여 만드는 '가획의 원리'가 있다.
- 6 자음의 기본자에 획을 더해서 만든 자음자는 '가획자'나 '이체자'이고, 서로 다른 자음자를 가로로 나란히 썼다고 하였으므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자음자는 기본자 'ㄹ'에 획을 더해 만든 가획자 'ㄴ'과 기본자 'ㄴ'에 획을 더해 만든 가획자 'ㄷ'을 가로로 나란히 쓴 'ㄴㄷ'이다.

**|오답 풀이|** ① 'ㅅ'은 서로 다른 기본자를 가로로 나란히 쓴 자음자이다.

② 'ㄸ'은 기본자 'ㄴ'에 획을 더해 만든 가획자 'ㄷ' 두 개를 가로로 나란히 쓴 자음자이다.

③ 'ㅈ'은 기본자 'ㅇ'에 획을 더해 만든 가획자 'ㅎ' 두 개를 가로로 나란히 쓴 자음자이다.

⑤ 'ㅊ'은 기본자 'ㄹ'에 획을 더해 만든 가획자 'ㅌ' 두 개를 가로로 나란히 쓴 'ㅌ'과 'ㅇ'을 세로로 이어 쓴 자음자이다.

7 'ㄷ'은 기본자 'ㄴ'에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로 만든 가획자이고, 나머지는 모두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뜨는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기본자이다.

8 'ㅇ'은 목구멍소리로,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자이다. 입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자는 'ㅁ'이다.

**|오답 풀이|** ①, ④ 'ㅇ'은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기본자이고, 'ㅎ', 'ㅎ'은 가획의 원리로 만든 가획자이다. 가획자는 획을 하나씩 더할수록 소리가 더 세지므로, 'ㅎ'에 획을 더해 만든 'ㅎ'은 'ㅎ'보다 소리가 더 세다.

③ 'ㅇ', 'ㅎ', 'ㅎ'은 모두 목구멍소리로, 비슷한 발음 기관을 사용하는 글자는 모양도 비슷하다.

⑤ 'ㅇ(여린히을)'은 현재는 쓰이지 않는 자음자이다.

9 이[齒]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는 'ㅅ'이고, 'ㅅ'에 획을 하나 더한 가획자는 'ㅆ'이며, 'ㅆ' 두 개를 가로로 나란히 쓰는 방법으로 만든 자음자는 'ㅆ'이다.

10 '·, ㅡ, ㅣ'는 각각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뜬 것으로,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합성의 원리는 모음의 기본자를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11 (가)에서 '·'와 'ㅡ'를 더한 'ㅏ, ㅑ', '·'와 'ㅣ'를 더한 'ㅓ, ㅕ'는 모음의 기본자를 한 번만 합한 글자로 '초출자'라고 한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모음의 기본자를 한 번만 합한 '초출자'이고 (나)는 모음의 기본자를 두 번 더한 '재출자'이다.

② 모양을 본뜨는 상형의 원리로 만든 모음자는 기본자인 '·, ㅡ, ㅣ'이다.

④ (나)는 'ㅏ, ㅑ, ㅓ, ㅕ'에 '·'를 다시 더하여 만든 모음자이다.

⑤ (다)는 열한 자의 모음(기본자, 초출자, 재출자)을 서로 합하여 만든 모음자이다. 'ㅗ, ㅛ'는 각각 'ㅏ'와 'ㅓ', 'ㅑ'와 'ㅕ'를 합하여 만들고, 'ㅜ, ㅠ'는 각각 'ㅜ'와 'ㅣ', 'ㅜ'와 'ㅣ'를 합하여 만든다. 또 'ㅞ, ㅟ'는 각각 'ㅞ'와 'ㅣ', 'ㅟ'와 'ㅣ'를 합하여 만든다.

12 한글은 기본자를 바탕으로 하여, 원리에 따라 글자를 조합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기본자만 익히면 이를 조합하여 다양한 글자를 만들 수 있으므로 익히기 쉽다.

13 모음자 중 'ㅣ'나 기본자 'ㅣ, ㅡ'에는 '·'가 결합되어 있지 않다.

14 'ㅑ'는 기본자를 두 번 더하여 만든 재출자로, 기본자 'ㅣ'와 '·'를 결합하여 만든 초출자 'ㅏ'에 '·'를 다시 더하여 만든다.

- 15 ‘ㄴ’과 ‘ㄷ’을 결합하여 만든 모음자는 ‘ㄴ’이고, ‘ㄴ’은 ‘ㄱ’과 ‘ㅣ’를 결합하여 만든 모음자이다.
- 16 <보기>의 ‘ㄴ’은 기본자를 한 번만 합하여 만든 초출자이고, ‘ㄷ’은 초출자 ‘ㄴ’에 ‘ㄷ’을 다시 더하여 만든 재출자이다. 초출자와 재출자는 모두 합성의 원리로 만든 글자이다.
- 17 <보기>에 사용된 표기 방식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음절 단위로 모아쓰는 방식이다. 로마자나 알파벳 등은 모아쓰기 방식이 아니라 풀어쓰기 방식으로 표기한다.
- 18 글자를 쓸 때 소리를 내는 단위인 음절로 모아쓰면 글자를 읽기 쉽고, 글자가 지닌 뜻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19 스물여덟 개의 글자만으로 수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한글의 특성 중 ‘실용성’과 관련 있다.
- 20 ㉠은 세종이 만든 ‘훈민정음’, 즉 한글을 가리킨다. ‘훈민정음’은 양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완성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양반들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완성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21 <보기>는 한글이 중국어, 일본어보다 문자 입력 속도가 빠른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문자이므로 변환하는 과정 없이 소리를 입력하면 문자가 완성되기 때문에 자판을 통해 문자를 입력하는 속도가 빠르다.
- 22 영어는 알파벳 하나가 단어에 따라 여러 가지 소리로 발음되는 반면,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로만 발음되어 문자와 소리가 대부분 일치하므로 음성 정보 활용에 탁월하다.
- 23 한글의 발전을 위해 한글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외국어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외국어를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독집계  예상문제

본책 86~89쪽

- 01 ④ 02 자주정신, 애민 정신, 실용 정신 03 ⑤ 04 ②  
05 ② 06 ⑤ 07 ㉠: 하늘의 둥근 모양, ㉡: —, ㉢: 혀가 오그라들지 않고 알게 나는 소리 08 ③ 09 ⑤ 10 ②  
11 ⑤ 12 ㉠은 풀어쓰기 방식으로 써서 읽기 어렵고, 글자가 지닌 뜻을 파악하기 힘든 반면, ㉡은 모아쓰기 방식으로 써서 읽기 쉽고 글자가 지닌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13 ⑤ 14 ②  
15 ② 16 ④ 17 ④
- 01 한글 자음의 가획자는 ‘ㄱ → ㅋ’과 같이 획을 하나씩 더할수록 소리가 더 세지는 특성이 있다.

- 02 우리말과 한자는 말소리와 문장 구조가 달라서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의 고유한 문자를 만들고자 하는 데에서 ‘자주정신’이 드러나고, 글자를 잘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을 가엾게 여겨 문자를 만들고자 하는 데에서 ‘애민 정신’이 드러나며, 누구나 쉽게 익혀서 날마다 편하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하는 데에서 ‘실용 정신’이 드러난다.
- 03 한글 자음의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목구멍소리 ‘ㅇ’을 만들었다.  
|오답 풀이| ① 어금닛소리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② 혀소리 ‘ㄴ’은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③ 입술소리 ‘ㅁ’은 입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④ 잇소리 ‘ㅅ’은 이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 04 가획의 원리에 따라 기본자 ‘ㄴ’에 획을 더해 만든 자음자는 ‘ㄷ’과 ‘ㄹ’이다. ‘ㄹ’은 획을 더해 만든 자음자 중 더해진 획이 소리가 세진다는 의미를 갖지 않는 글자인 이체자이다.
- 05 자음의 기본자 ‘ㄱ, ㄴ, ㄷ, ㄹ, ㅇ’ 중 어금닛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자는 ‘ㄱ’이다(㉠). ‘ㄴ’에 획을 한 번 더한 자음자는 ‘ㄷ’이고, 이를 가로로 나란히 쓴 자음자는 ‘ㄹ’이다(㉡). 자음의 기본자 ‘ㄱ, ㄴ, ㄷ, ㄹ, ㅇ’ 중 입술소리는 ‘ㅁ’이고 목구멍소리는 ‘ㅇ’이며, 이 두 개의 자음자를 세로로 이어 쓴 자음자는 ‘ㅁㅇ’이다(㉢).
- 06 재출자는 초출자 ‘ㄱ, ㄴ, ㄷ, ㄹ’에 ‘ㄷ’을 다시 더해서 만든 ‘ㄱ, ㄴ, ㄷ, ㄹ’이다. ‘ㄴ, ㄷ’은 모음자끼리 서로 합하여 다른 모음자를 만든 예이다.
- 07 ‘ㅇ’은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으며,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는 ‘ㅡ’이다.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ㅣ’는 혀가 오그라들지 않고 알게 나는 소리를 표현한 글자이다.
- 08 ‘ㅅ’은 ‘ㅣ’와 ‘ㄷ’을 더하여 만든 글자이고, ‘ㄴ’은 ‘ㄴ’과 ‘ㅣ’를 합하여 만든 글자이며, ‘ㄷ’은 ‘ㄱ’과 ‘ㅣ’를 합하여 만든 글자이다. 따라서 ㉠~㉢의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모음자는 ‘ㅣ’이다.
- 09 ‘ㄴ’은 ‘ㄱ’과 ‘ㅣ’를 합하여 만든 모음자이고, ‘ㅅ’은 ‘ㄱ’과 ‘ㅅ’을 합하여 만든 모음자이다. 그러므로 ‘ㄴ’을 만들기 위해서는 ‘ㄱ’, ‘ㅅ’ 세 장의 모음자 카드가 필요하다.  
|오답 풀이| ① ‘ㄴ’은 ‘ㅇ’과 ‘ㅣ’를 합하여 만들 수 있다.  
② ‘ㅅ’은 ‘ㅇ’과 ‘ㅅ’을 합하여 만들 수 있다.  
③ ‘ㅁ’은 ‘ㅁ’과 ‘ㅣ’를 합하여 만들 수 있다.  
④ ‘ㅅ’은 ‘ㅇ’과 ‘ㅅ’을 합하여 만들 수 있다.
- 10 ‘ㄱ, ㄴ, ㄷ, ㄹ, ㅇ’은 자음의 기본자이고, ‘ㅇ, —, ㅣ’는 모음의 기본자이다. 자음의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

들었고, 모음의 기본자는 하늘과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a). 또한 자음과 모음의 기본자는 모두 다른 글자를 만들 때 기본이 되는 글자이다(c).

**|오답 풀이|** b, d. 가획의 원리는 자음의 기본자에 획을 하나씩 더하여 다른 글자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만든 자음자를 가획자라고 한다. 가획자는 획을 하나씩 더할수록 소리가 세지며, 비슷한 발음 기관을 사용하는 글자끼리 모양이 비슷하다.

**11** 한글은 ‘사람’과 같이 자음자와 모음자를 음절 단위로 모아쓰는 방식으로 표기한다. 이때 자음자는 글자의 처음과 마지막에 쓰고, 모음자는 중간에 쓴다. ‘ㅅㅏㄴㅓㅗ’와 같이 글자의 처음 소리, 중간 소리, 마지막 소리를 차례대로 늘어놓는 것은 풀어쓰기 방식에 해당한다.

**12** ㉠은 글자의 처음 소리, 중간 소리, 마지막 소리를 풀어 쓴 것으로, 읽기 어렵고 어떤 뜻인지 한 번에 파악하기가 힘들다. 반면 ㉡은 글자를 음절 단위로 모아쓴 것으로, 읽기 쉽고 글자가 지닌 뜻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13** 한글은 적은 수(28개)의 자음자와 모음자를 체계적으로 조합하여 수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실용적인 문자라는 점에서 우수하다.

**|오답 풀이|** ①, ② 자음자의 창제 원리인 가획의 원리로 인한 특성에 해당하지만 한글의 실용성과는 관련이 없다.

③ 한글의 독창성에 해당한다.

④ 자음자의 창제 원리인 상형의 원리에 해당하지만 한글의 실용성과는 관련이 없다.

**14** ‘중’에 사용된 모음자는 ‘ㅗ’로, 모음의 기본자인 ‘ㅏ’와 ‘ㅜ’를 더한 초출자이다.

**|오답 풀이|** ①, ④ ‘ㅈ, ㅊ’ 2개의 자음자와 ‘ㅗ’ 1개의 모음자를 1개 음절로 모아써 썼다.

③ ‘ㅖ’는 자음의 기본자에 해당한다.

⑤ ‘ㅈ’은 자음의 기본자인 잇소리 ‘ㅈ’에 획을 더하여 만든 가획자에 해당한다.

**15** <보기>는 한글, 중국어, 일본어의 문자 입력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는 자료이다. <보기>를 통해 중국어나 일본어에 비해 한글의 문자 입력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16** ‘가’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ㄱ → ㅏ → ㅏ’의 순서로 자판의 키를 눌러야 한다.

**|오답 풀이|** ① 한글은 음절 단위로 표기하므로 자음자와 모음자를 모아쓰는 방식으로 글자를 입력한다.

② ‘ㄱ’에 획을 더하여 ‘ㅋ’을 만드는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여 ‘ㄱ’과 ‘ㅋ’을 하나의 키에 담았다.

③ ‘ㅏ → ㅖ → ㅖ’, ‘ㅗ → ㅜ → ㅜ’와 같이 가획되므로 ‘ㅏㅗ’ 키는 가획의 원리와 관련이 없다.

⑤ 모음의 기본자 ‘ㅏ’, ‘ㅖ’, ‘ㅜ’를 서로 결합하는 합성의 원리를 사용하여 다른 모음자를 만들 수 있다.

**17** 영어의 ‘a’는 ‘almond[아몬드], ‘appeal[어필], ‘apple[애플]과 같이 단어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지만, 한글의 ‘ㅏ’는 ‘가족, ‘나비’처럼 모두 [ㅏ]로 발음된다. 즉 한글은 영어와 달리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 등 음성 정보 활용에 유리하다.

## 고난도 입심화문제

본책 90~91쪽

**01** ③ **02** ④ **03** ④ **04** 합성의 원리에 따라 기본자 ‘ㅏ, ㅖ, ㅜ’를 한 번만 결합하여 초출자 ‘ㅓ, ㅗ, ㅛ, ㅜ’를 만들고, 초출자에 ‘ㅏ’를 다시 더하여 재출자 ‘ㅕ, ㅗ, ㅛ, ㅜ’를 만든다. **05** 음절 단위로 모아쓰면 글자를 읽기 쉽고 글자가 지닌 뜻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06** ③ **07** ⑤ **08** 한글의 ‘ㅏ’는 모두 [ㅏ]로 발음되는 반면, 영어의 ‘a’는 단어에 따라 다르게 발음된다. 이와 같이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로 발음되므로 디지털·정보화 시대에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에 유리하다.

**01** 우리말과 한자의 차이를 알고 우리의 고유한 문자가 필요함을 인식한 것(㉠)은 ‘자주정신’과, 문자를 모르는 백성을 안타깝게 여긴 것(㉡)은 ‘애민 정신’과, 누구나 쉽게 익히고 알파다 편하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든 것(㉢)은 ‘실용 정신’과 관련이 있다.

**02** <보기>는 자음자의 창제 원리 중 가획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기획자는 획을 하나씩 더할수록 소리가 더 세지는데, 소리의 세기가 달라져도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자음의 기본자에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로 다양한 자음자를 만든다.

②, ③, ⑤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진 자음자는 획을 하나씩 더할수록 소리가 더 세지며 비슷한 발음 기관을 사용하는 글자는 모양이 서로 비슷하다. 이와 같이 한글의 자음자는 소리의 특성이 글자의 모양에 반영된다.

**03** 제시된 글자들은 자음의 기본자(ㄱ, ㄴ, ㅇ)와 모음의 기본자(ㅏ, ㅖ, ㅜ)이다. 자음과 모음의 기본자는 모두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는데, ‘ㅏ’는 땅의 평평한 모양을, ‘ㅖ’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ㅜ’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04** <보기>는 모음의 기본자를 바탕으로 합성의 원리에 따라 새로운 모음자를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모음의 기본자 ‘ㅏ, ㅖ, ㅜ’를 한 번만 합하여 만든 ‘ㅓ, ㅗ, ㅛ, ㅜ’를 ‘초출자’라고 하고, 초출자에 ‘ㅏ’를 다시 더하여 만든 ‘ㅕ, ㅗ, ㅛ, ㅜ’는 기본자를 두 번 더했다 하여 ‘재출자’라고 한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초출자와 재출자의 창제 원리를 밝혀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기본자를 바탕으로 초출자와 재출자를 만드는 방법을 포함하여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05 <보기>는 한글의 자음자와 모음자를 모아쓰기 방식으로 표기한 예이다. 모아쓰기는 글자를 쓸 때 소리를 내는 단위인 음절 단위로 모아쓰는 방식을 말하며, 모아쓰기로 표기하면 글자를 읽기 쉽고 글자가 지닌 뜻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표기하는 단위를 포함하여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표기 방식의 장점을 포함하여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06 [전개 3]에서는 모음자의 창제 원리를 설명해야 하므로, 모음의 기본자를 서로 결합하여 초출자와 재출자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거나 모음자끼리 서로 합하여 새로운 모음자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모음자는 획을 더해 만들지 않으므로 획을 더해 다양한 모음자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야겠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도입]에서는 한글 창제 전의 문자 생활을 소개해야 하므로, 한자를 읽을 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적절하다.

② [전개 2]에서는 자음자의 창제 원리를 설명해야 하므로, 발음 기관의 모양과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든 자음자를 비교하는 그림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전개 4]에서는 한글의 표기 방식을 설명해야 하므로, 다른 방식으로 쓴 글자를 실제로 읽어 보게 하면서 음절 단위로 모아쓰는 방식의 장점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정리]에서는 한글의 가치를 소개하고 한글의 발전 방향을 안내해야 하므로, 디지털·정보화 시대에 한글이 지니는 가치를 설명하고 한글의 올바른 사용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다.

- 07 <보기>에서 중국어와 일본어의 경우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음을 입력한 후 맞는 한자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달리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글자이기 때문에 변환하는 과정 없이 소리를 입력하면 문자가 완성되므로 입력 속도가 빠르다.

- 08 영어는 알파벳 하나가 단어에 따라 여러 가지 소리로 발음되는 반면,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로 발음된다. 이와 같이 한글은 문자와 소리가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 등에 유리하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한글의 'ㅏ'와 영어의 'a'의 발음 차이를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디지털·정보화 시대에 한글이 지니는 가치를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02 음운의 체계

본책 94~109쪽

### 활동 학습

- 1 ④ 2 ⑤ 3 말소리의 길이 4 ④ 5 ④ 6 ③  
7 ① 8 ② 9 ① 10 ④ 11 ⑤ 12 ③ 13 ④  
14 'ㄷ, ㄹ, ㅇ'과 같은 울림소리가 주로 쓰였기 때문이다. 15 ①  
16 ① 17 ⑤ 18 ㉠: 강하고 단단한, ㉡: 세고 거친 19 ④  
20 ③ 21 ⑤ 22 ㅈ 23 ② 24 ⑤ 25 ②  
26 ④ 27 민주가 '네'의 'ㄴ'을 중모음 'ㅐ'로 발음해야 하는데 저모음 'ㅓ'로 발음했기 때문이다.

- 1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 내는 구체적인 물리적인 소리는 음운이 아니라 말소리(음성)이다.

- 2 '강'과 '방'을 발음할 때 소리가 다르게 나는 까닭은 초성에 쓰인 음운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강'과 '방'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는 음절의 처음 소리인 'ㄱ'과 'ㅂ'이다.

**| 오답 풀이 |** ① '강'은 'ㄱ', 'ㅏ', 'ㅇ', '방'은 'ㅂ', 'ㅑ', 'ㅇ'으로 둘 모두 3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다.

② '강'과 '방'에 공통으로 쓰인 음운은 모음 'ㅏ'로, 모음은 자음 없이 홀로 소리 낼 수 있다.

③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므로, 음운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새로운 말을 만들 수 있다.

④ '강'의 'ㄱ', 'ㅏ', '방'의 'ㅂ', 'ㅇ'과 같이 발음할 때 공기가 발음 기관의 방해로 받으며 나오는 소리인 자음이 포함되어 있다.

- 3 국어에서는 소리의 길고 짧음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므로 '말소리의 길이'도 음운이라고 볼 수 있다.

- 4 자음은 공기가 발음 기관의 방해로 받으며 나오는 소리인 반면, 모음은 공기가 발음 기관의 방해 없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소리이다. 따라서 자음끼리 또는 모음끼리 묶어야 하는데, ④는 모음끼리 묶여 있으므로 소리를 내는 방식이 같다.

- 5 단독으로 소리 낼 수 있는 음운은 자음이 아니라 모음이다. 자음은 'ㄱ, ㄴ, ㄷ, ㄹ' 등과 같이 공기가 발음 기관의 방해로 받으며 나오는 소리로, 모음을 만나야만 소리 낼 수 있다. 모음은 'ㅏ, ㅑ, ㅓ, ㅕ' 등과 같이 공기가 발음 기관의 방해 없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소리로, 자음 없이 홀로 소리 낼 수 있다.

- 6 '무리'와 '머루'는 자음은 동일하나 모음이 서로 다르므로, 두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음운의 종류는 모음이다. 나머지는 모음은 동일하나 자음이 서로 다른 단어끼리 묶여 있다.

- 7 '말과의 포유류'라는 뜻의 '말'은 '[말]'로 짧게 발음하고,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 기호'라는 뜻의 '말'은 '[말:]'로 길게 발음하여 뜻을 구별하므로, 두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요소는 말소리의 길이이다.

- 8 ‘ㄷ’과 ‘ㄹ’은 모두 혀끝이 윗잇몸에 닿으며 나는 소리인 잇몸 소리이므로, 소리 나는 위치가 같다.
- 9 혀의 뒷부분과 입천장 뒤쪽의 부드러운 부분 사이에서 나는 소리는 여린입천장소리로, ‘ㄱ, ㄲ, ㅋ, ㅇ’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소리를 낼 때 코안이 울리는 소리는 울림소리 중 비음으로, ‘ㅇ’이 이에 해당한다.
- 10 ‘ㅈ’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인 파찰음에 해당하지만 ‘ㅅ’은 입안이나 목청 사이를 좁혀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인 마찰음에 해당한다.
- 11 ‘ㄴ-ㄹ-ㅇ’은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자음을 구분하여 비음끼리 묶은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자음을 구분하여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자음끼리 묶은 것이다.
- 12 ‘ㄷ’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으며 나는 소리인 잇몸소리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ㄹ’은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인 입술소리이다.  
 ② ‘ㄱ’은 혀의 뒷부분과 입천장 뒤쪽의 부드러운 부분 사이에서 나는 소리인 여린입천장소리이다.  
 ④ ‘ㅎ’은 목청 사이에서 나는 소리인 목청소리이다.  
 ⑤ ‘ㅈ’은 혀바닥과 입천장 앞쪽의 단단한 부분 사이에서 나는 소리인 센입천장소리이다.
- 13 ‘ㅊ’은 혀바닥과 입천장 앞쪽의 단단한 부분 사이에서 나는 소리인 센입천장소리이고, 나머지는 모두 혀끝이 윗잇몸에 닿으며 나는 소리인 잇몸소리이다.
- 14 ‘말랑말랑’에 쓰인 자음 ‘ㄹ’, ‘ㄹ’, ‘ㅇ’은 모두 울림소리이다. 울림소리는 발음할 때 발음 기관이 울리는 소리로, 소리가 부드럽고 이어지는 느낌이 나는 특징이 있다.
- 15 발음할 때 발음 기관이 울리는 소리는 울림소리(ㄴ, ㄹ, ㅁ, ㅇ)이고, 이 중 비음(콧소리)은 ‘ㄴ, ㅁ, ㅇ’이고, 유음(흐름소리)은 ‘ㄹ’이다.  
**| 오답 풀이 |** ② ‘ㄹ’은 울림소리 중 비음(콧소리)에 해당한다.  
 ③ ‘ㄱ’은 울림소리가 아니라, 안울림소리 중 파열음에 해당한다.  
 ④ ‘ㅇ’은 울림소리 중 비음(콧소리)에 해당한다.  
 ⑤ ‘ㄴ’은 울림소리 중 비음(콧소리)에 해당한다.
- 16 코안을 울려 소리 내는 비음(ㄴ, ㅁ, ㅇ)은 코를 막으면 정확하게 발음할 수 없다. ‘냥’에 사용된 자음 ‘ㄴ’과 ‘ㅇ’은 모두 비음(콧소리)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② ‘딸’에 사용된 자음 ‘ㄷ’은 안울림소리이고, ‘ㄹ’은 울림소리 중 유음(흐름소리)이다.  
 ③ ‘국’에 사용된 자음 ‘ㄱ’은 안울림소리이다.  
 ④ ‘술’에 사용된 자음 ‘ㅅ’은 안울림소리이고, ‘ㄹ’은 울림소리 중 유음이다.

⑤ ‘жат’에 사용된 자음 ‘ㅈ’과 ‘ㅅ’은 안울림소리이다.

- 17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는 파찰음으로, ‘ㅈ, ㅉ, ㅊ’이 이에 해당한다. 제시된 단어 중 ‘ㅈ, ㅉ, ㅊ’이 포함된 단어는 ‘자동차’이다.
- 18 ‘단단하다’의 ‘ㄷ’은 예사소리, ‘판판하다’의 ‘ㅍ’은 된소리, ‘탄탄하다’의 ‘ㄷ’은 거센소리에 해당한다. 된소리는 예사소리보다 강하고 단단한 소리가 나고, 거센소리는 예사소리보다 세고 거친 소리가 난다.
- 19 모음은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단모음과 이중 모음으로 나뉜다.  
**| 오답 풀이 |** ① 평순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소리를 내므로 입술 모양이 평평하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그러나 ‘ㄴ’, ‘ㄹ’은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원순 모음에 해당한다.  
 ② 입술 모양이나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세분화되는 것은 이중 모음이 아니라 단모음이다.  
 ③ 단모음을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것은 맞으나, 단모음 중 ‘ㄴ’, ‘ㄹ’과 같은 모음도 있으므로 하나의 확으로 이루어졌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원순 모음을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것은 맞으나, 원순 모음은 모두 단모음이므로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변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20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고 소리 내는 단모음은 원순 모음이다. 원순 모음으로는 ‘ㅁ, ㅂ, ㅅ, ㅈ’이 있다.  
**| 오답 풀이 |** ① ‘ㄴ’은 원순 모음, ‘ㄹ’은 평순 모음이다.  
 ② ‘ㄴ’은 원순 모음, ‘ㄹ’은 이중 모음이다.  
 ④ ‘ㄴ’은 원순 모음, ‘ㄹ’은 평순 모음이다.  
 ⑤ ‘ㅁ’은 이중 모음, ‘ㅂ’은 원순 모음이다.
- 21 ‘ㄴ’은 발음할 때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는 후설 모음이고, 나머지는 모두 발음할 때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는 전설 모음이다.
- 22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모음은 원순 모음(ㅁ, ㅂ, ㅅ, ㅈ)이고, 발음할 때 입이 조금 열려서 혀의 위치가 높은 모음은 고모음(ㅣ, ㅗ, ㅛ, ㅜ)이다. 그리고 발음할 때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는 모음은 후설 모음(ㅑ, ㅓ, ㅕ, ㅗ, ㅛ)이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모음은 ‘ㅜ’이다.
- 23 <보기>에 제시된 ‘ㅑ, ㅓ, ㅕ, ㅗ, ㅛ’는 모두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내는 소리인 평순 모음이다.  
**| 오답 풀이 |** ① <보기>에 제시된 모음 중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소리인 원순 모음은 없다.  
 ③ <보기>에 제시된 모음 중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이중 모음은 없다. 이중 모음으로는 ‘ㅟ, ㅠ, ㅡ, ㅢ, ㅣ, ㅤ’ 등이 있다.

④ <보기>에 제시된 모음 중 발음할 때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는 전설 모음에 해당하는 것은 'ㅞ'와 'ㅟ'이다.

⑤ <보기>에 제시된 모음 중 발음할 때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는 후설 모음에 해당하는 것은 'ㅓ'와 'ㅡ'이다.

24 발음할 때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는 전설 모음은 'ㅞ, ㅟ, ㅢ, ㅣ, ㅤ'이므로, 전설 모음으로 이루어진 단어끼리 묶인 것은 '배계'와 '미래'이다.

| 오답 풀이 | ① '거울'은 후설 모음(ㅓ, ㅕ)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② '전구'는 후설 모음(ㅓ, ㅑ)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③ '주사'는 후설 모음(ㅓ, ㅈ)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④ '참외'에서 모음 'ㅓ'는 후설 모음이다.

25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가장 높은 모음은 고모음(ㅓ, ㅕ, ㅡ, ㅗ)이다. '름'의 'ㅡ'는 고모음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쇠'의 'ㅞ'는 중모음에 해당한다.

③ '바'의 'ㅓ'는 저모음에 해당한다.

④ '석'의 'ㅓ'는 중모음에 해당한다.

⑤ '도'의 'ㅓ'는 중모음에 해당한다.

26 발음할 때 입이 크게 열려서 혀의 위치가 낮은 모음은 저모음(ㅞ, ㅟ)이고, 발음할 때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는 모음은 후설 모음이다. 저모음(ㅞ, ㅟ) 중 'ㅞ'는 전설 모음에 해당하므로 <보기>에서 설명하는 모음은 'ㅟ'이다.

27 <보기>에서 민주가 '네'의 [ㅞ] 발음을 [ㅟ]로 발음하여 준호가 '네'를 '내'로 듣는 바람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ㅞ'는 저모음으로 입을 크게 열어서 혀의 위치를 낮게 두고 발음하고, 'ㅟ'는 중모음으로 'ㅞ'보다 입을 작게 열어서 혀의 위치를 중간에 두고 발음해야 한다.

### 족집게 예상 문제

본책 110~113쪽

01 ④ 02 ③ 03 ② 04 ③ 05 ③ 06 ①

07 ② 08 ② 09 ② 10 ⑤ 11 (1) ㅞ (2) ㅓ

(3) ㅞ (4) ㅟ (5) ㅢ 12 ③ 13 ④ 14 ③ 15 ③

16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가? 17 ④ 18 ㉠은 원순 모음이자 고모음이고, ㉡은 평순 모음이자 저모음이다. 19 ①

20 ⑤ 21 ② 22 ② 23 대화할 때 음운을 정확하게 발음해야 서로의 말을 잘 이해하게 되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01 '봄'과 '밤'의 'ㅓ'와 'ㅓ'는 모음으로, 자음 없이 홀로 소리 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⑤ '봄'과 '곰'은 'ㅓ'와 'ㅓ'가 다르기 때문에, '봄'과 '밤'은 'ㅓ'와 'ㅓ'가 다르기 때문에 뜻이 구별된다. 이와 같이 음운 하나만 바뀌어도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

③ '봄'과 '곰'의 'ㅓ'와 'ㅓ'는 자음으로, 모음 없이 홀로 소리 낼 수 없으며 모음을 만나야만 소리 낼 수 있다.

02 ㉠의 '무리'와 '머루'는 모음 'ㅓ, ㅣ'와 'ㅓ, ㅓ'의 차이만으로 뜻이 다른 단어가 되었으므로, 모음과 자음의 차이로 단어의 뜻이 구별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3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입술소리는 'ㅍ, ㅑ, ㅓ, ㅕ'이다.

| 오답 풀이 | ① 목청 사이에서 나는 목청소리는 'ㅎ'이다.

③ 혀끝이 윗잇몸에 닿으며 나는 잇몸소리는 'ㄷ, ㅌ, ㅍ, ㅓ, ㅕ, ㅗ, ㅛ'이다.

④ 혀바닥과 센입천장(입천장 앞쪽의 단단한 부분) 사이에서 나는 센입천장소리는 'ㄷ, ㅌ, ㅍ'이다.

⑤ 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입천장 뒤쪽의 부드러운 부분) 사이에서 나는 여린입천장소리는 'ㄱ, ㅋ, ㆁ, ㅇ'이다.

04 안울림소리 중에서 'ㅎ'은 소리의 세기를 나눌 수 없어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구분이 없다.

| 오답 풀이 | ① 소리의 세기에 따라 'ㄱ-ㄱ-ㄱ'으로 나눌 수 있다.

② 소리의 세기에 따라 'ㅍ-ㅍ-ㅍ'으로 나눌 수 있다.

④ 소리의 세기에 따라 'ㄷ-ㄷ-ㄷ'으로 나눌 수 있다.

⑤ 소리의 세기에 따라 'ㅌ-ㅌ-ㅌ'으로 나눌 수 있다.

05 발음할 때 코안이 울리는 소리는 울림소리 중 비음(콧소리)이다. 비음인 'ㄴ', 'ㄹ', 'ㅇ'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는 '문명'('문'의 ㅁ, ㄴ / '명'의 ㅁ, ㅇ)이다.

06 'ㅞ'는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잇몸소리,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안울림소리 중 파열음, 소리의 세기에 따라 거센소리에 해당한다. 'ㄷ'보다 강하고 단단한 소리가 나는 것은 된소리인 'ㅌ'이다. 'ㅞ'는 'ㄷ'보다 더 세고 거친 소리가 난다.

07 '말랑말랑'에 사용된 자음은 'ㄹ', 'ㄹ', 'ㅇ'으로, 울림소리에 해당한다. 울림소리는 소리가 부드럽고 이어지는 느낌이 난다.

| 오답 풀이 | ① 울림소리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 구분되지 않는다. 소리의 세기에 따른 구분이 있는 것은 안울림소리이다.

③ 울림소리는 발음할 때 코안이나 입안과 같은 발음 기관이 울리는 소리이다.

④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소리를 내는 것은 안울림소리 중 파열음이다.

⑤ 발음할 때 공기가 목청 사이에서 방해를 받으며 나오는 것은 목청소리인 'ㅎ'이다.

08 발음할 때 입안을 울려 소리를 내는 자음은 울림소리 중 유음(흐름소리)이다. 유음 'ㄹ'이 포함된 단어는 '라면'이다.

09 'ㄷ'은 안울림소리 중 파열음이고 'ㄴ'은 울림소리 중 비음(콧소리)이므로 서로 소리 내는 방법이 다르지만, 'ㄷ'과 'ㄴ' 모두

잇몸소리이므로 소리 나는 위치는 같다.

**| 오답 풀이 |** ① 안울림소리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구분되지만, 울림소리는 소리의 세기에 따른 구분이 없다.

③ 'ㄱ', 'ㄲ', 'ㅋ'은 각각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이므로 소리의 세기는 다르지만, 모두 여린입천장소리이므로 소리 나는 위치가 같다.

④ 'ㄴ', 'ㄷ', 'ㅇ'은 모두 울림소리 중 비음(콧소리)이므로 소리 내는 방법은 같지만, 'ㄴ'은 입술소리, 'ㄷ'은 잇몸소리며, 'ㅇ'은 여린입천장소리이므로 소리 나는 위치가 다르다.

⑤ 파찰음 'ㅈ', 'ㅊ', 'ㅊ'은 모두 혀바닥과 입천장 앞쪽의 단단한 부분 사이에서 소리 나는 센입천장소리이다.

**10** ㉠에는 'ㅂ', ㉡에는 'ㅃ', ㉢에는 'ㅍ'이 들어가야 하고, 모두 입술소리이자 안울림소리 중 파열음에 해당하며, ㉠은 예사소리, ㉡는 된소리, ㉢는 거센소리이다. 따라서 음절에 쓰인 예사소리 'ㅂ(㉠)'을 된소리 'ㅃ(㉡)'으로 바꾸어 쓰면 소리가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단단한 느낌이 난다.

**| 오답 풀이 |** ① 거센소리인 'ㅍ(㉢)'은 예사소리인 'ㅂ(㉠)'보다 더 세고 거친 소리가 난다.

② 예사소리인 'ㅂ(㉠)'은 된소리인 'ㅃ(㉡)'이나 거센소리인 'ㅍ(㉢)'과 달리 성대를 편안하게 둔 상태에서 숨을 보통으로 내쉬어 내는 소리이다.

③ 파열음인 'ㅂ(㉠)', 'ㅃ(㉡)', 'ㅍ(㉢)'은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소리를 낸다.

④ 'ㅂ(㉠)', 'ㅃ(㉡)', 'ㅍ(㉢)'은 모두 입술소리로, 입술소리는 발음할 때 공기가 두 입술 사이에서 방해를 받으며 나온다.

**11** ㉠은 잇몸소리이면서 파열음의 거센소리이므로 'ㄷ'이다. ㉡와 ㉢는 잇몸소리이면서 마찰음인데 ㉡는 예사소리이므로 'ㅅ'이고, ㉢는 된소리이므로 'ㅆ'이다. ㉣는 목청소리이므로 'ㅎ'이고, ㉤는 울림소리 중 유음(흐름소리)이므로 'ㄹ'이다.

**12**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는 입술소리인 'ㅂ, ㅃ, ㅍ, ㅁ'이고,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는 비음(콧소리)인 'ㄴ, ㄷ, ㅇ'이다. 코안을 울려 소리 내므로 코를 막으면 정확하게 발음할 수 없는 것은 비음의 특징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에서 설명하는 자음은 'ㄴ'이다.

**13** '눈'은 말소리의 길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이라는 뜻의 '눈'은 [눈]으로 짧게 발음하고,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의 결정체.'라는 뜻의 '눈'은 [눈:]으로 길게 발음한다.

**| 오답 풀이 |** ① 문장을 구성하는 음운은 'ㄴ, ㅌ, ㄴ, ㄷ, ㅌ, ㄴ, ㄴ, ㄴ, ㄴ'로 총 9개이다.

② '크다'에 사용된 모음 'ㅡ'와 'ㅏ'는 모두 평순 모음이므로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는다.

③ 거센소리 'ㄷ'은 예사소리 'ㄱ'보다 더 세고 거친 느낌을 준다.

⑤ 문장에 쓰인 모음은 'ㅌ, ㅏ, ㅡ, ㅏ'로 모두 단모음에 해당한다. 따라서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다.

**14** 발음할 때 발음 기관이 울리는지, 울리지 않는지에 따라 분류하는 음운은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다. 발음할 때 발음 기관이 울리는 소리를 울림소리라고 하고, 울리지 않는 소리를 안울림소리라고 한다.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 변화에 따라 단모음과 이중 모음으로 나누고, 단모음은 다시 입술 모양이나 혀의 최고점의 위치, 혀의 높이에 따라 나눌 수 있다.

**15**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은 이중 모음으로,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ㅨ'가 이에 해당한다. '수레'의 모음 'ㅜ'와 'ㅞ'는 모두 단모음이다.

**| 오답 풀이 |** ① '겨울'의 'ㅞ', ② '계획'의 'ㅞ', ④ '요리'의 'ㅟ', ⑤ '희망'의 'ㅞ'는 이중 모음이다.

**16** ㉠에는 단모음의 분류 기준이 들어가야 하는데, 기준에 부합하는 단모음은 원순 모음인 'ㅜ, ㅜ, ㅜ, ㅜ'이고, 부합하지 않는 단모음은 평순 모음인 'ㅏ, ㅏ, ㅏ, ㅏ, ㅡ, ㅡ'이다. 따라서 ㉠에 들어갈 단모음의 분류 기준은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가?'로 쓸 수 있다.

**17** <보기>에 제시된 단모음의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전설 모음 |       | 후설 모음 |       |
|-----|-------|-------|-------|-------|
|     | 평순 모음 | 원순 모음 | 평순 모음 | 원순 모음 |
| 고모음 | ㉠ ㅏ   | ㅜ     | ㅡ     | ㅜ ㅜ   |
| 중모음 | ㅞ     | ㉡ ㅜ   | ㅟ     | ㅠ     |
| 저모음 | ㅢ     |       | ㅤ ㅥ   |       |

따라서 ㉠에는 'ㅏ', ㉡에는 'ㅜ', ㉢에는 'ㅟ', ㉣에는 'ㅠ'가 들어가야 한다.

**18** ㉠ 'ㅜ', 'ㅜ'는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원순 모음이며 입이 조금 열려서 혀의 위치가 높은 고모음이다. 반면, ㉡ 'ㅟ', 'ㅠ'는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는 평순 모음이며 입이 크게 열려서 혀의 위치가 낮은 저모음이다.

**19** 'ㅏ'는 발음할 때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는 전설 모음이고, 나머지는 모두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는 후설 모음이다.

**20** ㉠에서 'ㅞ', 'ㅞ'는 전설 모음이므로 발음할 때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고, 'ㅟ', 'ㅠ'는 후설 모음이므로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다.

**| 오답 풀이 |** ① ㉠ 'ㅏ, ㅜ, ㅡ, ㅜ'는 고모음이고, ㉡ 'ㅞ, ㅜ, ㅟ, ㅠ'는 중모음이므로, ㉠이 ㉡보다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더 높다.



대단원 평가문제

01 ② 02 ④ 03 ① 04 ⑤ 05 ① 06 ⑤

07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뜬 기본자 ‘·’와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뜬 기본자 ‘—’를 합하여 만든 초출자 ‘ㄱ’을 글자의 중간에 쓴다.  
08 ⑤ 09 ① 10 ④ 11 (1) 소리 나는 위치 (2) 소리 내는 방법 (3) 소리의 세기 12 ⑤ 13 ④ 14 ③ 15 ②  
16 ④ 17 ④ 18 ③ 19 ⑤ 20 ‘지환’의 ‘나’를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중 모음인 ‘과’를 단모음 ‘ㅏ’로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01 (가)를 통해 우리말을 표기하는 고유한 문자인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는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빌려 썼다는 사실과, 양반이 아닌 일반 백성은 한자를 배울 기회가 없어 대부분 글을 읽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소인 같은 평범한 백성이 한자를 어찌 읽을 줄 알겠습니까?”라는 말을 통해 일반 백성들은 대부분 한자를 읽을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 백성들이 글자를 읽고 쓰는 데 불편함이 없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는 우리말을 표기하는 고유한 문자가 없어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빌려 썼으며, 백성들과 양반들이 사용하는 문자가 구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자를 쓸 줄 알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02 세종은 우리말은 중국 말과 달라, 한자로 표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만의 독창적인 문자를 만들고자 하였으며(ㄹ, 자 주정신), 글자를 잘 모르는 백성을 가엾게 여겨(ㄴ, 애민 정신) 누구나 쉽게 배우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하였다(ㄷ, 실용 정신).  
|오답 풀이| ㄱ. 세종은 우리말과 한자의 차이를 인식하고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하였다.  
ㄴ. 한글이 체계적으로 만든 과학적인 문자인 것은 맞지만, (나)에서 과학적인 문자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03 ‘ㄱ’은 소리 낼 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오답 풀이| ② ‘ㄴ’은 소리 낼 때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③ ‘ㄷ’은 입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④ ‘ㅅ’은 이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⑤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04 (마)에서 자음자를 가로로 나란히 쓰는 예로 ‘ㄱ, ㅋ, ㆁ, ㅅ, ㅆ, ㅎ’과 ‘ㅁ, ㅂ, ㅅ’과 같은 글자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자음자도 가로로 나란히 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05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가획자를 만든 자음자와 달리, 모음자는 모음의 기본자를 서로 결합하는 합성의 원리를 사용하여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ㅆ, ㅈ, ㅊ, ㅋ, ㆁ, ㅅ, ㅆ, ㅈ, ㅊ, ㅋ, ㆁ)으로 나뉘고,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소리인지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내는 소리인지에 따라 ㉠ 원순 모음(ㅜ, ㅡ, ㅗ, ㅓ)과 ㉡ 평순 모음(ㅑ, ㅓ, ㅕ, ㅗ, ㅓ, ㅕ, ㅗ, ㅓ, ㅕ)으로 나뉜다.

07 ‘구름’과 ‘위치’에 사용된 모음 ‘ㅜ, ㅡ’와 ‘ㅓ, ㅕ’는 모두 발음할 때 입이 조금 열려서 혀의 위치가 높은 고모음이다.

|오답 풀이| ① 발음할 때 입이 크게 열려서 혀의 위치가 낮은 것은 저모음으로, ‘ㅓ, ㅕ’가 이에 해당한다.

③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은 이중 모음으로, ‘ㅑ, ㅓ, ㅕ, ㅗ, ㅓ, ㅕ, ㅗ, ㅓ, ㅕ’가 이에 해당한다.

④ 발음할 때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는 것은 후설 모음으로, ‘ㅓ, ㅕ, ㅗ, ㅓ, ㅕ’가 이에 해당한다.

⑤ 발음할 때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는 것은 전설 모음으로, ‘ㅓ, ㅕ, ㅗ, ㅓ, ㅕ’가 이에 해당한다.

08 ‘ㅜ’는 고모음이므로 발음할 때 ‘ㅜ’보다 혀의 높이가 낮은 모음은 중모음(ㅓ, ㅕ, ㅗ, ㅓ, ㅕ)과 저모음(ㅑ, ㅓ)이다. ‘ㅡ’는 평순 모음이므로 소리를 낼 때의 입술 모양이 ‘ㅜ’와 다른 모음은 원순 모음(ㅜ, ㅡ, ㅗ, ㅓ, ㅕ)이다. 후설 모음인 ‘ㅓ’보다 발음할 때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는 모음은 전설 모음(ㅓ, ㅕ, ㅗ, ㅓ, ㅕ)이다. 따라서 모든 설명에 해당하는 모음은 ‘ㅓ’이다.

09 자음 카드 ‘ㄱ, ㅋ, ㆁ’ 중에서 발음할 때 발음 기관이 울리며 소리 나는 울림소리(ㄴ, ㅁ, ㅇ, ㄹ)는 ‘ㄴ’뿐이다. ‘ㅁ’은 코안이 울리는 소리인 비음(콧소리)에 해당한다. 하지만 ‘ㄱ, ㅋ’은 발음할 때 코안이나 입안 같은 발음 기관이 울리지 않는 안울림소리로,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소리 내는 파열음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자음은 음절의 처음 소리와 마지막 소리에, 모음은 음절의 중간 소리에 올 수 있다.

③ 모음 카드 ‘ㅓ’와 ‘ㅕ’는 모두 발음할 때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는 후설 모음에 해당한다.

④ ‘꿈’에서 자음 카드 ‘ㄱ’을 ‘ㅓ’로 바꾸면 ‘뽕’이 된다.

⑤ ‘꿈’에서 모음 카드 ‘ㅓ’를 ‘ㅕ’로 바꾸면 ‘깁’이 된다.

10 <보기>를 보면 ‘ㅓ’는 저모음이고 ‘ㅕ’는 중모음이다. 진우가 ‘내’를 [네]로 발음하는 바람에 상대(연아)를 탓하는 것으로 오해가 생긴 상황이므로 이 대화의 빈칸에는 저모음을 발음할 때 혀의 높이와 관련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저모음은 중모음보다 발음할 때 입이 크게 열려서 혀의 위치가 낮은 모음이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저모음을 발음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네’를 발음할 때와 비교하여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input type="checkbox"/>               |

다른 모음자를 만들었다. ‘·’와 ‘ㅡ’를 더한 글자인 ‘ㄴ’, ‘ㄷ’, ‘·’와 ‘ㅣ’를 더한 글자인 ‘ㅌ’, ‘ㅍ’와 같이 기본자를 한 번만 합한 글자를 ‘초출자’라고 한다.

- 06 ㉠의 ‘ㄴ(ㄴ+ㅌ)’, ‘ㄷ(ㄷ+ㅌ)’는 각각 초출자인 ‘ㄴ’과 ‘ㅌ’, ‘ㄷ’와 ‘ㅌ’를 합하여 만든 글자가 맞지만, ㉡의 ‘ㄴ(ㄴ+ㅣ)’, ‘ㄷ(ㄷ+ㅣ)’는 각각 모음자 ‘ㄴ’과 기본자 ‘ㅣ’, 모음자 ‘ㄷ’와 기본자 ‘ㅣ’를 합하여 만든 글자이다.

**| 오답 풀이 |** ① 모음자는 모음의 기본자를 서로 결합하여 만드는 합성의 원리를 사용하므로, 기본자인 ‘·’, ‘ㅡ’, ‘ㅣ’는 ㉠~㉡의 바탕이 된다.

② ㉠의 ‘ㄴ(·+ㅡ+ㅣ+·)’, ‘ㄷ(ㅡ+·+·+ㅣ)’는 ㉡의 ‘ㄴ(·+ㅡ+ㅣ)’, ‘ㄷ(ㅡ+·+ㅣ)’보다 기본자 ‘·’가 한 번 더 더해졌으므로, 결합된 기본자의 개수가 많다.

③ ㉠의 ‘ㄴ(ㅌ+ㅣ)’, ‘ㄷ(ㅌ+ㅣ)’와 ㉡의 ‘ㄴ(ㄴ+ㅣ)’, ‘ㄷ(ㄷ+ㅣ)’는 각각 초출자인 ‘ㅌ’, ‘ㅌ’와 ‘ㄴ’, ‘ㄷ’에 기본자 ‘ㅣ’를 더하여 만들었다.

④ ㉡의 ‘ㄴ(ㄴ+ㅣ)’, ‘ㄷ(ㄷ+ㅣ)’는 각각 ㉠의 ‘ㄴ’, ‘ㄷ’에 기본자 ‘ㅣ’를 더하여 만들었다.

- 07 ‘돌’은 모아쓰기 방식으로 표기한 글자로, 글자의 중간에 쓰인 모음자 ‘ㅇ’는 모음의 기본자 ‘·’와 ‘ㅡ’를 한 번만 합한 글자라 하여 초출자라고 한다. 이때 기본자 ‘·’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이고, 기본자 ‘ㅡ’는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이다.

- 08 <보기>를 통해 영어는 알파벳 하나가 단어에 따라 여러 가지 소리로 발음되는 반면,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글은 문자와 소리가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 등 음성 정보 활용에 유리하다.

- 09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ㄱ), 음운의 종류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으며, ‘말소리의 길이’도 음운에 해당한다(ㄴ).

**| 오답 풀이 |** ㄷ. 음운은 자립하여 쓸 수 없으며,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의 단위는 ‘단어’이다.

ㄹ. 동일한 음운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음절의 처음 소리, 중간 소리, 마지막 소리에 어떤 자음과 모음이 오는지나 말소리의 길이에 따라 전혀 다른 단어가 될 수 있다.

ㅁ.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 내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는 ‘말소리’이다.

- 10 ‘굴’과 ‘길’은 음절의 중간 소리인 ‘ㄴ’과 ‘ㅣ’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뜻을 가진 단어가 되었다.

- 11 자음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입술소리, 잇몸소리, 설립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로 나눌 수 있고,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안울림소리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눌 수 있다.

- 12 ㉠ ‘ㄴ, ㄷ, ㅌ’는 혀끝이 윗잇몸에 닿으며 소리 나는 잇몸소리이고, ㉡ ‘ㄴ, ㄷ, ㅌ’은 발음할 때 코안이나 입안 같은 발음 기관이 울리지 않는 안울림소리 중,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소리 내는 파열음이다. ㉢ ‘ㄴ, ㄷ, ㅌ’은 발음할 때 발음 기관이 울리는 울림소리이다. 안울림소리인 ㉡는 소리가 딱딱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나는 반면, 울림소리인 ㉢는 소리가 부드럽고 이어지는 느낌이 난다.

**| 오답 풀이 |** ① ㉠에서 ‘ㄷ, ㅌ’은 발음할 때 발음 기관이 울리지 않는 안울림소리이지만 ‘ㄴ’은 발음 기관이 울리는 울림소리이다. ② ㉢에서 ‘ㄴ, ㅌ’은 코안을 울려 소리 내는 비음(콧소리)이므로 코를 막으면 정확하게 발음할 수 없지만, ‘ㄷ’은 입안을 울려 소리 내는 유음(흐름소리)이므로 코를 막아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③ ㉠ ‘ㄴ, ㄷ, ㅌ’과 ㉢의 ‘ㄴ’은 잇몸소리이므로 혀끝이 윗잇몸에 닿으며 소리가 나지만, ㉢의 ‘ㄴ’은 두 입술 사이에서 소리 나는 입술소리이고 ‘ㅇ’은 혀의 뒷부분과 입천장 뒤쪽의 부드러운 부분 사이에서 소리 나는 여린입천장소리이다.

④ ㉡ ‘ㄴ, ㄷ, ㅌ’은 파열음으로,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이다.

- 13 ‘까치밥’에서 ‘ㄴ’은 된소리, ‘ㅌ’은 거센소리, ‘ㅍ’은 예사소리이므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모두 포함된 단어는 ‘까치밥’이다. ‘ㄷ’은 울림소리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풀꽃’은 거센소리(ㅌ, ㅌ)와 된소리(ㄴ)만 포함된 단어이다. ‘ㄷ’은 울림소리에 해당한다.

② ‘떡볶이’는 된소리(ㄷ, ㄴ)와 예사소리(ㄱ, ㅍ)만 포함된 단어이다.

③ ‘서커스’는 예사소리(ㅌ)와 거센소리(ㅌ)만 포함된 단어이다.

⑤ ‘허수아비’는 예사소리(ㅌ, ㅍ)만 포함된 단어이다.

- 14 ‘중학생’에 쓰인 자음은 ‘ㅌ, ㅇ, ㅎ, ㄱ, ㅌ’이다. ‘ㅌ’은 설립천장소리(㉠), 안울림소리 중 파찰음, 예사소리이다. ‘ㅇ’은 여린입천장소리(㉡), 울림소리 중 비음(㉢)이다. ‘ㅎ’은 목청소리(㉣), 안울림소리 중 마찰음(㉤)이다. ‘ㄱ’은 여린입천장소리(㉡), 안울림소리 중 파열음, 예사소리이다. ‘ㅌ’은 잇몸소리, 안울림소리 중 마찰음(㉤), 예사소리이다.

- 15 혀의 뒷부분과 입천장 뒤쪽의 부드러운 부분 사이에서 나는 소리는 여린입천장소리로, ‘ㄱ, ㄴ, ㄷ, ㅇ’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인 파열음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ㄷ’이다. 그리고 발음할 때 코안이 울리는 소리는 비음으로, ‘ㄴ, ㄷ, ㅇ’이 이에 해당한다. 제시된 단어 중 ‘ㄱ, ㄴ, ㄷ, ㄴ, ㄷ, ㅇ’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는 ‘강낭콩’이다.

**| 오답 풀이 |** ① ‘단무지’는 ‘ㄷ, ㅌ’이 포함된다.

③ ‘고무줄’은 ‘ㅌ, ㄷ’이 포함된다.

④ ‘자동차’는 ‘ㅌ, ㄷ, ㅌ’이 포함된다.

⑤ ‘쟁거루’는 ‘ㄷ’이 포함된다.

- 16 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가 발음 기관의 방해 없이 그대로 흘러

나오는 소리이며(ㄴ), 단모음은 소리 낼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원순 모음과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는 평순 모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ㅁ). 또한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높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구분한다(ㄷ).

**| 오답 풀이 |** ㄱ. 모음은 자음 없이 홀로 소리 낼 수 있다.

ㄷ. 모음은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 변화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 하고,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을 이중 모음이라고 한다.

**17** 표준어 규정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단모음이지만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는 것은 ‘ㅁ’과 ‘ㅂ’이다. 이 중 발음할 때 입이 조금 열려서 혀의 위치가 높은 고모음은 ‘ㅂ’이다. ‘ㅁ’는 중모음에 해당한다.

**18** ‘ㅁ’는 전설 모음, 평순 모음, 중모음이고, ‘ㅂ’는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중모음이다. 즉, ‘ㅁ’와 ‘ㅂ’ 모두 발음할 때 입이 중간 정도 열려서 혀의 높이가 중간인 모음이다.

**| 오답 풀이 |** ① 중모음은 입을 중간 정도 열어 소리를 낸다. 입을 크게 열어 소리 내는 모음은 저모음이다.

②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하는 것은 ‘ㄴ, ㄷ, ㄹ, ㄱ’과 같은 원순 모음이다. ‘ㅁ’과 ‘ㅂ’는 평순 모음이다.

④ 발음할 때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있다는 것은 전설 모음인 ‘ㅁ’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ㅂ’는 후설 모음이므로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에 있다.

⑤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것은 이중 모음이다. ‘ㅁ’과 ‘ㅂ’는 모두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단모음이다.

**19** ㉠ ‘아버지’에서 모음 ‘ㅏ’는 저모음, ‘ㅓ’는 중모음, ‘ㅣ’는 고모음에 해당하고, ㉡ ‘주사위’에서 모음 ‘ㅜ’는 고모음, ‘ㅗ’는 저모음, ‘ㅡ’는 고모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은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은 고모음과 저모음만 사용되었다.

**| 오답 풀이 |** ① ㉠ ‘거울’의 ‘ㄱ, ㄹ’은 각각 여린입천장소리, 잇몸소리, ㉡ ‘아버지’의 ‘ㅂ, ㅈ’은 각각 입술소리와 센입천장소리, ㉢ ‘주사위’의 ‘ㅈ, ㅍ’은 각각 센입천장소리와 잇몸소리로, ㉠~㉢에는 목청소리인 ‘ㅎ’이 쓰이지 않았다.

② ㉠ ‘거울’의 ‘ㄱ, ㄹ’ ㉡ ‘아버지’의 ‘ㅂ, ㅈ’ ㉢ ‘주사위’의 ‘ㅈ, ㅍ’은 모두 예사소리이다.

③ ㉠ ‘거울’의 ‘ㅓ’는 평순 모음이고 ‘ㅜ’는 원순 모음이다. ㉡ ‘주사위’의 ‘ㅜ’와 ‘ㅡ’는 원순 모음이고, ‘ㅣ’는 평순 모음이다.

④ ㉠ ‘아버지’의 ‘ㅏ’와 ‘ㅓ’는 후설 모음이고, ‘ㅣ’는 전설 모음이며 ㉢ ‘주사위’의 ‘ㅜ’와 ‘ㅗ’는 후설 모음이고, ‘ㅡ’는 전설 모음이다.

**20** 남학생이 ‘지환’의 ‘ㅈ’을 이중 모음으로 발음해야 하는데 단모음 ‘ㅈ’로 발음했기 때문에 여학생이 청소 담당을 ‘지환’으로 잘못 알아들었다. 따라서 이중 모음을 단모음으로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3 세상을 담아내는 창

#### 01 복합양식의 글과 자료 읽기

본책 124~127쪽

재재

1 ④ 2 ③ 3 ⑤ 4 일자리 수의 변화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5 ② 6 ④ 7 업무를 수행할 때 사람과 대면으로 접촉하거나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8 ③

**1** (다)에 많은 일자리가 인공 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시되어 있으나, (라)에서 인공 지능의 발전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제시되어 있다. 즉, 이 글은 인공 지능의 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과 긍정적인 관점을 모두 제시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인 관점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동영상, 그림, 그래프 등 다양한 복합양식 기호를 활용하고 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청의 인공 지능 아나운서 ‘제이나’와 인공 지능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그림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등 인공 지능이 활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③ 인공 지능 아나운서 ‘제이나’를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비용을 절감하여 뉴스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⑤ (다)에서 많은 일자리가 인공 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공 지능을 활용하여 자동화되는 업무의 비중을 수치로 제시하였다. 또한 (라)에서 인공 지능의 발전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공 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및 데이터 과학 분야와 관련한 일자리 수의 수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2** (나)에서 인공 지능으로 만든 작품을 예술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 논쟁이 불거지기도 했다고 하였을 뿐, 인공 지능의 발전으로 예술 작품 창작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인공 지능 아나운서 ‘제이나’ 사례, 인공 지능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그림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사례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인공 지능이 두루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인공 지능으로 만든 작품을 예술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다고 하였다.

④ (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2023년에 발표한 「일자리의 미래」에서는 인공 지능을 활용하여 자동화되는 업무의 비중이 2022년 34퍼센트에서 2027년에는 42퍼센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하였다.

⑤ (라)에서 전 세계 18,000여 개 기업의 고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공 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및 데이터 과학 분야와 관련한 일자리가 2022년 9월 기준 3,168개에서 2023년 9월 기준 5,079개로 증가했다고 하였다.

3 이 글에서는 인공 지능 아나운서 ‘제이나’가 뉴스를 진행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 동영상 자료는 오늘날 인공 지능의 발달 정도를 알 수 있으므로 표현 방법으로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인공 지능이 미래 사회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관한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을 모두 소개하고 있으므로,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에서 내용을 전달한다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② 이 글은 인공 지능의 발달이 미래 사회 일자리에 미칠 영향이라는 보편타당한 내용을 주제로 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③ 이 글은 세계 경제 포럼과 세계적인 인사 관리 서비스 기업의 연구소에서 발표한 객관적인 수치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였으므로 신뢰할 만하다.

④ 그림 자료인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은 인공 지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글의 내용을 뒷받침하므로 표현 방법으로 적절하다.

4 [A]는 인공 지능 분야의 고용 경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시각화하여 제시하므로, 독자는 인공 지능 분야의 일자리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5 의사의 업무 중 각종 검사 결과를 판독하는 업무는 인공 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지만,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등의 대면이 필요한 업무는 인공 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낮다.

**| 오답 풀이 |** ① 인공 지능 노출 지수가 높을수록 인공 지능이 대신하기 쉬운 업무이며, 그 일자리가 인공 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③ 인공 지능 노출 지수가 낮은 직업인 성직자, 대학교수, 가수 및 성악가 등은 인공 지능 대체 가능성이 낮다.

④, ⑤ (아)에서 새로운 것을 생각해서 창조하는 능력은 인공 지능이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 중 하나라고 하였으며, 인공 지능 시대에 대비하려면 이러한 특성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6 [A]는 직업별 인공 지능 노출 지수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제시하여 직업별 인공 지능 노출 지수 및 인공 지능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과 낮은 직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표현 방법으로 적절하다.

7 성직자, 대학교수, 가수 및 성악가 등 인공 지능 노출 지수가 낮은 직업은 업무를 수행할 때 사람과 대면으로 접촉하거나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8 [B]는 2020년에 제작된 비교적 최신의 자료이며(ㄱ), 공신력 있는 공영 방송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일부이다(ㄴ). 또한 [B]에는 경제 분야의 전문가(경제 평론가)가 나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대해 분석하여 전망하고(ㄹ) 있으므로 신뢰할 만한 자료이다.

**| 오답 풀이 |** ㄷ, ㄹ. 신뢰성을 평가할 때에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권위 있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자료의 유형이나 내용 자체로만 신뢰성을 평가할 수는 없다.

## 독집해썩 예상 문제

본책 128~131쪽

01 ⑤ 02 ① 03 ⑤ 04 ④ 05 신뢰, 수치 06 ③ 07 ④  
08 인공 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및 데이터 과학 분야 09 ③ 10 ⑤  
11 ③ 12 인공 지능 노출 지수가 높은 직업으로, 인공 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13 ② 14 ① 15 ⑤

01 이 글은 인공 지능의 발전이 미래 사회의 일자리에 미칠 영향과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을 다양한 복합양식 기호를 활용하여 설명하는 글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며 글쓴이의 주관적 생각을 중심으로 독자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동영상, 그림, 그래프 등 글의 내용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복합양식 기호를 제시하고 있다.

② 글의 ‘처음’ 부분에 인공 지능 아나운서와 인공 지능으로 제작한 그림과 같은 사례를 들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③ (가)는 동영상, (나)는 그림, (라)는 그래프 등 다양한 복합양식 기호를 활용하여 글을 구성하고 있다.

④ (다)와 (라)에서는 인공 지능의 발전이 미래 일자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해 많은 일자리가 인공 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부정적 관점과, 인공 지능의 발전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02 [A]는 인공 지능 아나운서 ‘제이나’가 뉴스를 진행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 자료이고, [B]는 인공 지능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그림 자료이다. [A]와 [B] 모두 실제 인공 지능이 활용되는 사례를 제시하여 오늘날 인공 지능의 발달 수준을 독자가 실감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03 예술이란 특별한 재료, 기교, 양식 등으로 감상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및 그 작품을 일컫는 말로, 인간의 감정, 경험, 창의성이 반영되는 과정으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인간의 감정이나 경험, 창의성이 반영된 ‘인간의 활동’이 아닌, 인공 지능을 활용하여 만든 작품을 예술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 논쟁이 불거진 것임을 알 수 있다.

04 (다)에는 많은 일자리가 인공 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견해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나타난다. 과거부터 기술이 발전

하는 만큼 사람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었으며, 그 예로 계산이나 글자 입력 등 사무직 근로자가 수행하던 단순한 업무를 컴퓨터가 대신하게 된 것을 제시하고 있다.

**05** ㉔는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이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많은 일자리가 인공 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근거로 적절하다.

**06** 이 글은 ‘인공 지능이 미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편 타당한 주제에 관해, 많은 일자리가 인공 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부정적 관점과 인공 지능의 발전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 관점을 균형 있게 제시하였으므로 타당하다.

**| 오답 풀이 |** ① 글의 내용 타당성을 평가할 때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에서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않았는지 판단해야 하므로, 화제에 관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내용을 타당하게 전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인공 지능이 미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상반된 두 가지 견해를 모두 제시하고 있으므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④ 인공 지능의 발달이 미래 사회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을 모두 제시하였으므로, 인공 지능이 미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중점을 두어 내용을 전개했다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⑤ 인공 지능이 미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를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부정적인 견해를 비판하고 긍정적인 견해를 강조하지 않았다.

**07** (라)는 글로 제시한 인공 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및 데이터 과학 분야와 관련한 일자리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그래프 형식으로 표현하였으며(ㄴ), 인공 지능 분야의 고용 경향이 변화하는 추이를 꺾은선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ㄷ). 또한 그래프를 활용함으로써 독자가 인공 지능 분야의 일자리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ㄹ).

**| 오답 풀이 |** ㄱ. 글과 꺾은선 그래프를 모두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단일 양식이 아니라 복합양식으로 이루어졌다.

ㄷ. 글과 그래프에 모두 객관적인 수치가 나타나며, 글쓴이의 주관적인 주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08** (라)의 글과 그래프를 통해 인공 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 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및 데이터 과학 분야와 관련한 일자리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09** (다)에서는 인공 지능 노출 지수가 낮은 직업군과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인공 지능 노출 지수가 낮은 직업군이 마주할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10** 글쓴이는 인공 지능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도

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인간의 일자리에 영향 미칠 것이라고 예측한다. 따라서 인공 지능 시대를 대비하여 인간이 인공 지능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인공 지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글쓴이는 인공 지능 시대에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에 관한 당부를 전하고 있다. 인공 지능 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인공 지능이 인간의 일자리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제시하며 균형 있게 다루고 있으므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글을 썼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글쓴이는 인공 지능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과 우리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인공 지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글쓴이는 인공 지능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것을 강조하므로, 인공 지능과 동일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1** (라)에서 제시한 경제 분야 전문가(경제 평론가)의 인터뷰 영상은 공신력 있는 공영 방송사의 자료이며, 2020년에 제작된 비교적 최신의 자료이므로 신뢰할 만하다(ㄴ). 또한 (다)에서 제시한 막대그래프는 직업별 인공 지능 노출 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였으므로 표현 방법으로 적절하다(ㄷ).

**| 오답 풀이 |** ㄱ. (다)에 제시된 막대그래프 아래에 ‘직업별 인공 지능 노출 지수, 한국은행, 2023.’이라고 출처를 표시하고 있다.

ㄷ. 경제 평론가의 인터뷰 영상은 전문가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내용을 전달하여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표현 방법으로 적절하다.

**12** (나)를 통해 ‘일반 의사, 건축가, 수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은 인공 지능 노출 지수가 높은 직업임을 알 수 있다. 인공 지능 노출 지수가 높을수록 인공 지능이 대신하기 쉬운 업무이며, 그 일자리가 인공 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13** (라)에는 인공 지능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인간이 갖추어야 하는 역량이 제시되어 있다. 인공 지능보다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은 (라)에서 언급한 역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14** 이 광고의 장면들은 실제 청소년들이 출연하여 대체로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의 학교생활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광고에 상반된 분위기의 장면을 대비하여 제시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15** 이 광고에서 “우정이 남다르죠.”라는 말은 인종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은 달라도 우정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전달하여 다문화 청소년에 관해 흔히 가지고 있는 고정 관념을 깨뜨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01 ② 02 인공 지능이 미래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관해 (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점을, (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점을 드러낸다. 03 ④ 04 ① 05 ⑤  
06 [A]는 정보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혔으며, (공신력 있는 공영 방송사의 자료로)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다.

01 [A]는 인공 지능 아나운서 ‘제이나’가 뉴스를 진행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 자료로, 인공 지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글의 내용을 뒷받침하므로 표현 방법으로 적절하다(ㄱ). [C]는 세계적인 인사 관리 서비스 기업 연구소의 고용 데이터 분석 결과를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로, 1년간(2022년 9월~2023년 9월) 인공 지능 분야와 관련한 일자리 수의 변화 추이를 시각화하여 일자리 수가 증가했음을 독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표현 방법으로 적절하다(ㄷ).

**[오답 풀이]** ㄴ. [B]는 인공 지능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작품(그림)으로 실제 인공 지능이 활용되는 사례를 보여 줄 뿐,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작품의 예술성을 높이는 방법은 드러나지 않는다. ㄷ. [C]는 분야별 일자리의 고용 경향 수치를 비교하는 그래프가 아니라, 1년간(2022년 9월~2023년 9월) 인공 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및 데이터 과학 분야와 관련한 일자리 수의 증가 추세를 보여 주는 그래프이다.

02 (다)와 (라)의 공통 화제는 ‘인공 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 할까?’이다. (다)는 이러한 화제에 관해 많은 일자리가 인공 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내며, (라)는 인공 지능의 발전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관점을 드러낸다.

| 평가 기준                                       | 확인 ☑                     |
|---------------------------------------------|--------------------------|
| (다)와 (라)의 공통 화제를 밝혀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다)가 부정적 관점을, (라)가 긍정적 관점을 보이고 있음을 포함하여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3 [C]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인공 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및 데이터 과학 분야 일자리 수의 변화를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이다. 꺾은선 그래프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추세를 시각화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여 주므로, 문자로만 이루어진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C]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추세를 보여 주는 자료이며, 비슷한 항목 간의 수치를 비교하거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아니다.

② [C]는 내용을 꺾은선 그래프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전체를 기준으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은 원그래프의 특징이다.

04 (마)에서 인공 지능 시대를 대비하여 인간이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한 글쓴이의 당부를 제시하였으며(ㄱ), (가)에서 인공 지능 노출 지수의 개념(현재의 인공 지능 기술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과 해석하는 방법(인공 지능 지수가 높을수록 인공 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하였다(ㄴ). 그리고 (라)에서 ‘이러한 인공 지능 시대에 대비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길러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져 독자의 관심을 끌고 이어질 내용을 예고하였다(ㄷ).

**[오답 풀이]** ㄷ. 각종 검사 결과의 판독 및 관련 판례의 분석 업무와 대면이 필요한 업무 등 인공 지능이 대신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의 구체적인 예는 제시하였으나, 각 업무의 장단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ㄹ. 막대그래프로 인공 지능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과 낮은 직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해당 직업들의 변화 추이는 제시하지 않았다.

05 인공 지능 시대에 대비하려면 새로운 것을 생각해서 창조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 사람들 사이의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또한 데이터 분석 및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인공 지능이 수행하는 업무를 지시 및 관리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도 길러야 한다. 그러나 창조하는 능력, 돕는 능력, 조정하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데이터 분석 및 디지털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사람과 대면으로 접촉하거나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직업이 인공 지능 노출 지수가 낮다고 하였으므로, 대면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 보호사도 인공 지능 노출 지수가 낮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② 인공 지능 시대를 대비하려면 인공 지능이 수행하는 업무를 지시 및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④ 일반 의사나 변호사 등의 직업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거나 재판에서 의뢰인을 변호하는 등의 대면이 필요한 업무보다 각종 검사 결과를 판독하거나 관련 판례를 분석하는 등의 업무가 인공 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06 [A]는 영상 자료 아래에 ‘케이비에스(KBS) 『명견만리 Q100』’이라고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A]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제공자가 공신력 있는 공영 방송사와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경제 평론가)이므로 신뢰할 만하다.

| 평가 기준                                     | 확인 ☑                     |
|-------------------------------------------|--------------------------|
| 정보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지 평가하여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정보 제공자가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과 권위를 지니고 있는지 평가하여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2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한 글 쓰기

### 활동 학습

본책 136~139쪽

- 1 ④ 2 내용 생성하기 3 ③ 4 ③ 5 ④ 6 ②  
7 ⑤ 8 공연에서 두드림이 부른 전체 노래 목록이 정리된 표

- 1 글쓰기에 활용할 복합양식 자료를 선별할 때에는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자료인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주제와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인지를 선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2 글을 쓰기 위해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복합양식 자료 중에서 활용할 자료를 선별하는 단계는 '내용 생성하기'이다.
- 3 하늘이는 가수 두드림의 10주년 공연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관람 소감을 나누기 위해 글을 쓰려고 한다. 따라서 글의 주제는 '가수 두드림의 공연 정보와 관람 소감'이다.
- 4 가수 두드림의 10주년 공연과 관련된 정보와 관람 소감을 전달하는 내용이므로 공연장 정보, 두드림의 주요 활동과 음반 발매 이력, 공연에서 연주한 곡과 공연 순서, 공연을 관람한 관객들의 반응 등을 제시한 자료는 내용을 보완할 때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두드림과 같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던 가수들의 신곡 음원은 공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추가할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
- 5 하늘이가 작성한 개요의 '중간' 부분은 공연 일시 및 공연장, 공연 내용에 관한 소개로 이루어져 있다.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다른 가수들의 공연 정보는 하늘이가 작성한 개요의 '중간' 부분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6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한 글을 점검할 때에는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은 제외해야 하며, 자료의 저작권을 확인하여 사용 허락을 받고,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자료의 내용을 글쓴이의 의도에 맞게 임의로 변형하면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될 수 있고,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7 하늘이는 공연장 공식 누리집에 공개된 좌석 배치도를 활용하여 좌석 배치 및 무대의 형태까지 한눈에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가수에 관한 정보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하늘이는 글의 '중간' 부분에서 공연장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링크를 연결하여 공연장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② 하늘이는 글의 '처음' 부분에서 공연의 기획 의도가 잘 드러나는 공연 포스터를 제시하였다.  
③ 하늘이는 글의 '중간' 부분에서 신곡 발표 순간을 동영상 형식으로 제시하여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드러냈다.  
④ 하늘이는 글의 '중간' 부분에서 공연장 좌석 배치도를 제시하여 좌석 배치, 무대 형태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였다.

- 8 하늘이는 고쳐쓰기 단계에서 이번 공연에서 두드림이 또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알려 달라는 댓글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연에서 두드림이 부른 전체 노래 목록이 정리된 표'를 찾아서 추가해야겠다고 말하고 있다.

## 독집게 예상문제

본책 140~141쪽

- 01 ① 02 (1) 블로그 글 (2) 가수 두드림의 공연에 오지 못해 아쉬워할 사람들 03 ④ 04 ④ 05 ① 06 ⑤ 07 ③  
08 ⑤

- 01 (가)에서 하늘이는 가수 두드림의 공연에 오지 못해 아쉬워할 사람들을 위해 공연을 소개할 목적으로 글을 쓰려고 한다.
- 02 (가)에서 하늘이가 블로그에 글을 올린다고 했으므로 글의 유형은 '블로그 글'이며, 예상 독자는 '가수 두드림의 공연에 오지 못해 아쉬워할 사람들'이다.
- 03 글에 활용할 복합양식 자료에는 과장, 축소, 왜곡된 내용이 없어야 한다. 내용이나 형식을 쉽게 수정하면 자료가 과장, 축소, 왜곡될 수 있으므로, 내용이나 형식을 쉽게 수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자료를 선별할 까닭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보기>는 가수 두드림의 10주년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알 수 있는 기사로, 두드림의 10주년 공연을 소개하려는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자료이다.  
② <보기>에는 공연 포스터가 함께 제시되어 있어 시각 자료를 활용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③ <보기>는 '□□일보'라는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⑤ <보기>는 가수 두드림의 10주년 공연 포스터를 함께 제시하여 공연의 기획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
- 04 (나)에서는 독자가 공연장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링크로 연결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연장 위치를 지도 그림으로 제시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05 (나)에는 공연장의 위치와 교통편에 관한 정보, 공연장 좌석 배치에 관한 정보와 좌석에 관한 글쓴이의 평가, 발표된 신곡에 관한 글쓴이의 감상 등이 드러난다. 그러나 공연장 이용 시 주의할 점에 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06 [A]는 공연장의 좌석 배치와 무대 형태를 알 수 있는 좌석 배치도이며, [B]는 신곡 발표 순간을 담은 동영상이다. [B]는 자막을 활용하여 신곡의 제목과 신곡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나, 신곡에 관한 평가를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7 (나)는 가수 두드림의 10주년 공연 정보와 관람 소감을 소개하는 글이다. 따라서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게 보완하는 방향으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공연에서 두드림이 부른 전체 노래 목록을 표로 정리하여 추가하면(ㄷ) 공연에 관한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공연을 즐긴 사람들의 소감이 담긴 영상을 추가하면(ㄹ) 다양한 공연 관람 후기를 전달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ㄱ. 대중음악의 상업성에 관한 전문가 인터뷰는 '가수 두드림의 10주년 공연 정보와 관람 소감'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ㄴ. 공연장 위치 링크는 공연에 관해 소개한다는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자료이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ㄴ. 글에 활용할 자료는 내용을 과장, 축소, 왜곡해서는 안 되므로, 공연의 예매 경쟁률을 과장하여 나타낸 그래프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8 <보기>에는 블로그에 올리는 글이 아니라, 학교 소식지에 실는 것으로 글의 유형을 바꿔 쓰는 상황이 나타난다. 블로그에는 동영상상을 올리거나 링크를 직접 첨부할 수 있지만, 종이로 된 소식지에는 QR 코드와 같은 별도의 매개 없이 링크나 동영상 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글의 유형에 맞게 복합양식 자료를 적절히 활용해야 하므로 동영상 자료를 사진과 같은 시각 자료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② 종이로 된 소식지에도 문자 외에 그림이나 사진, 표, 그래프 등의 시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공연장의 좌석 배치도는 현재와 같이 그림으로 제시해야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므로, 표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종이로 된 소식지에는 동영상이나 링크 자료를 바로 볼 수 있게 직접 첨부하기 어렵다.

## 고난도 심화문제

본책 142~143쪽

01 ④ 02 자료의 출처가 신뢰할 만하고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가? 03 ⑤ 04 ④ 05 ③ 06 ①

01 (다)에서 글쓰이는 공연장의 위치를 링크로 연결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관해 아쉬운 점을 제시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교통편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 수월했다고 하였다.

02 [A]의 출처는 '공연장 공식 누리집'으로 신뢰할 만하며, [A]는 공연장의 공식 누리집에서 공개한 자료를 출처와 함께 제시한 것이므로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A]를 글에 활용할 자료로 선별할 때 자료의 출처가 신뢰할 만하고,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출처'가 신뢰할 만한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3 <보기>는 소속사 공식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계정에서 공개한 영상으로, 이 영상을 그대로 공유하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원본 영상을 임의로 편집하여 사용할 때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04 복합양식 자료는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므로, 복합양식 자료의 의미를 독자마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자료에 대한 설명을 최소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5 '중간 1'에 해당하는 (다)에서 공연장의 좌석 설계 방식 및 좌석 배치에 관한 설명과 함께 좌석 배치도 그림을 제시하여 정보를 직관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06 <보기>에서는 공연에서 두드림이 부른 또 다른 노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므로, 두드림이 부른 노래의 목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표를 추가하고 두드림 공연을 관람해 볼 것을 제안하며 글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 대단원 평가문제

본책 144~147쪽

01 ④ 02 인공 지능이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03 ⑤ 04 ② 05 ① 06 [A]는 막대그래프 자료로, 직업별 인공 지능 노출 지수 및 인공 지능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과 낮은 직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07 ④ 08 ⑤ 09 ③ 10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11 ⑤ 12 ③ 13 ④ 14 ② 15 ③

01 이 글은 인공 지능의 발전이 미래 사회의 일자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하는 글로, (다)에서는 인공 지능의 발전으로 많은 일자리가 인공 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시하고, (라)에서는 인공 지능의 발전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화제에 관한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을 모두 다루고 있으므로,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에서 내용을 전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가)에서는 인공 지능 아나운서 '제이나'가 뉴스를 진행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 자료를 제시하고, (나)에서는 인공 지능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그림 자료를 제시하여 인공 지능이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글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 03 (다)에서는 인공 지능의 발전으로 많은 일자리가 인공 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시하고, (라)에서는 인공 지능의 발전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제시하고 있다. 즉, (다)와 (라)는 인공 지능의 발전이 미래 일자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내용을 포괄하는 소재목으로는 ‘인공 지능의 발전은 미래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적절하다.
- 04 <보기>는 인공 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및 데이터 과학 분야의 일자리 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독자는 이를 통해 인공 지능 분야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보기>는 수치의 변화 추이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 05 인공 지능 노출 지수가 높은 직업으로 일반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을 예로 들면서 인공 지능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거나 재판에서 의뢰인을 변호하는 등의 대면이 필요한 업무보다는 각종 검사 결과를 판독하거나 관련 판례를 분석하는 등의 업무를 대신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인공 지능 노출 지수가 낮은 직업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람과 대면으로 접촉하거나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대면 업무가 많은 직업은 인공 지능 노출 지수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6 [A]는 직업별 인공 지능 노출 지수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제시하여 직업별 인공 지능 노출 지수 및 인공 지능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과 낮은 직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07 동영상 자료는 상황이나 사건, 대상의 움직임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많은 양의 정보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 방식은 아니다.
- | 오답 풀이 |** ①, ② <보기>의 자료는 비교적 최신의 자료이고, 공영 방송사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작한 자료이므로 신뢰할 만하다.
- ③ <보기>의 자료는 경제 분야 전문가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대해 분석하며 전망하고 있으므로 정보 제공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신뢰할 만하다.
- ⑤ <보기>의 자료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 인공 지능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라)의 내용과 긴밀하게 연관되며, 이를 뒷받침하므로 표현 방법으로 적절하다.
- 08 (가)는 글을 쓰기 전에 작성한 개요로, 개요를 작성하는 단계는 ‘내용 조직하기’에 해당한다.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블로그 글’이라는 매체와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글의 구조를 짜고, 복합양식 자료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세운다.
- | 오답 풀이 |** ①은 ‘계획하기’, ②는 ‘고쳐쓰기’, ③은 ‘내용 생성하기’, ④는 ‘표현하기’ 단계에서 할 일이다.
- 09 (다)에서는 공연이 진행된 기간과 장소, 공연장의 위치와 교통편, 그리고 공연장의 좌석 배치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나, 공연장의 장점과 단점을 소개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즉, (다)로 보아 ‘중간 1’ 부분에서는 ‘공연 일시 및 공연장’을 소개하고 있다.

- 10 글쓰기에 활용할 복합양식 자료를 선별할 때에는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자료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보기>는 10주년 공연 정보와 관람 소감을 소개하려는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이므로, (나)~(라)에 활용하지 않은 것이다.
- 11 예상 독자를 ‘두드림에 관해 처음으로 호기심을 갖게 된 사람들’로 바꿀 때 두드림 노래의 특징, 두드림의 대표곡 소개, 두드림의 구성원 소개, 두드림의 공연이 사랑받는 까닭 등은 두드림과 공연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에 두드림의 팬들이 좋아하는 또 다른 가수들에 관한 내용은 가수 두드림과는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추가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12 (나)에서 활용한 자료는 두드림의 10주년 공연 포스터로, (나)에서는 공연 포스터를 제시하여 공연의 기획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공연을 관람한 사람들의 감상은 공연 포스터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13 (나)~(라)에는 두드림의 10주년 공연 정보와 글쓴이의 관람 소감 등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번 공연이 이전보다 인상 깊었던 까닭은 나타나 있지 않다.
- 14 (나)~(라)는 가수 두드림의 10주년 공연 정보와 관람 소감을 소개하는 글이므로, 가수 두드림 및 두드림의 공연에 관해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내용과 그에 맞는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대표곡 무대를 소개하면서 관객 반응이 좋았던 대표곡 무대 영상을 첨부하는 것은 실제 무대의 분위기와 특징을 직접 보여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ㄱ). 공연 후 관객들이 공연에 관해 평가한 만족도 수치를 연령별로 나누어 그래프로 제시하는 것은 두드림의 공연에 관한 평가 결과를 한눈에, 압축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ㄷ). 공연에 관한 가수 두드림의 소감이 제시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계정을 연결하면 공연을 즐긴 관객뿐만 아니라 공연을 준비한 가수의 소감까지 직접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ㄹ).
- | 오답 풀이 |** ㄴ. 팬덤 문화의 문제점과 팬덤 문화의 부작용을 다룬 뉴스 보도는 ‘두드림의 공연 정보와 관람 소감 소개’라는 글의 목적 및 주제와 관련되지 않아 추가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ㄷ. ‘공연 관람 예절 안내’는 글의 목적 및 주제와 관련되지 않으므로 추가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공연장의 외부 사진은 공연 관람 예절을 이해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 15 (나)~(라)는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는 블로그 글이며,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는 글도 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는 글이므로 자료의 출처를 삭제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4 창의적인 발상, 표현하는 재미

### 01 반어, 풍자, 역설 표현

#### 제재 ①

본책 152~157쪽

- 1 ⑤ 2 “우리 사또님께서 걸인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그런 말은 하지도 마시오.” 3 ① 4 ① 5 ④  
6 ① 7 “암행어사 출두여!” 8 ④ 9 ④ 10 ③  
11 ① 12 “내려오는 벼슬아치들마다 하나같이 훌륭하기만 하구나.”

1 운봉 진영장이 걸인의 모습을 한 어사또를 보고 끝자리에 앉히고 술이나 먹여 보내자고 변 사또에게 제안한 것은 어사또가 양반의 후예인 듯했기 때문이다. 운봉이 어사또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사령이 사또가 걸인을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너그럽지 못한 변 사또의 성격이 드러난다.

3 [A]에서 어사또는 다른 수령들과 달리 초라한 상을 받는다. 이는 변 사또가 걸인의 행색을 한 어사또에게 초라한 상을 내어준 것일 뿐, 어사또의 성품은 관련이 없다.

**| 오답 풀이 |** ② 풍성한 수령들의 상을 통해 권력층이 누리는 사치와 특권을 보여 주고 있다.

③, ④ 이웃 고을 수령들에게는 다담상을 놓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어사또에게는 초라한 상을 내어 주었다. 어사또는 이러한 차별적인 대우에 화가 나서 상을 발길로 찬 것이다. ⑤ 상대의 행색이나 신분에 따라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변 사또의 모습을 통해 탐관오리의 이중성을 폭로하고 있다.

4 “이렇게 좋은 잔치에 맛난 술과 음식을 양껏 먹고”라는 말은 반어 표현으로, 실제로는 잔치에 와서 푸대접을 받은 상황을 비꼬기 위해 한 말이다.

5 암행어사가 출두하자, 관리들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중요한 물건들은 놓치고 엉뚱한 것들을 들고 달아나거나, 갓 대신 밥상을 머리에 쓰는 등 정신없이 행동한다. 이처럼 체면이 깎이는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탐관오리들이 체면을 지키려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6 어사또가 지은 시를 듣고 잔치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어사또가 단순한 걸인이 아님을 알아채고 하나둘 서둘러 관아를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즉, 어사또의 시는 암행어사 출두라는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을 예고하며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으므로 긴장감을 완화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②, ④ 비유와 대구의 방법을 통해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탐관오리의 횡포와 가렴주구를 비판하고 있다. ③ 탐관오리의 사치와 백성들의 고통을 대비하여 당시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⑤ ‘만백성의 피’와 ‘만백성의 기름’은 백성들의 고통을 의미한다.

7 암행어사 출두로 변 사또의 생일잔치가 한창이었던 관아는 일순간에 탐관오리를 징벌하는 장소가 된다. 이처럼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는 장면은 이 글에서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고, 긴장감을 형성하며, 분위기를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8 ㉔에서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어지는 듯하여 풀과 나무, 짐승들까지 벌벌 떨었다며 암행어사의 위세를 과장되게 표현하기는 했지만, 이를 통해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암행어사가 그만큼 큰 위세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9 (가)는 이 글의 행복한 결말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절개를 지킨 춘향에게 ‘정렬부인’이라는 칭호가 내려지고, 기생의 딸이었던 춘향이 양반인 이몽룡의 정식 부인이 된 것은 신분을 초월한 사랑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정렬부인’이라는 칭호는 절개를 지킨 춘향에게 내려진 것이므로, 이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춘향의 지위가 상승한 것뿐이다.

② 춘향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자신의 절개를 지켜 냈지만, 이를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랑으로 볼 수는 없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랑은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과 살아 있는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형태로 나타난다.

③ 이 글의 중심 사건은 어사또가 탐관오리를 징벌하고, 목숨을 걸고 절개를 지켜 낸 춘향이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여 사랑을 성취한 것이다. 따라서 서민 의식의 성장이나 신분제의 동요를 직접적으로 보여 주지는 않는다. 특히 춘향이 ‘정렬부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것은 임금이 그녀의 절개를 인정하여 상을 내린 것일 뿐, 이를 신분제가 동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⑤ 춘향은 목숨을 걸고 절개를 지켜 내어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랑을 성취했으므로, 이를 여성의 욕망을 억압하는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10 ㉑에서 춘향은 비유 표현을 통해 자신의 절개가 어떠한 권력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높은 바위’와 ‘푸르른 나무’는 춘향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 오답 풀이 |** ①, ② ‘바람’과 ‘눈’은 권력의 압박을 의미하며, 시련이 닥쳐도 절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상징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④ “그 빛이 변하겠습니까?”와 같이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⑤ ‘~가 ~다고 ~’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11 ㉒, ㉓, ㉔, ㉕은 어사또, 즉 몽룡을 지시하는 말이다. 이와 달리 ㉖는 변 사또를 가리킨다.

12 <보기>는 반어 표현에 관한 설명이다. 춘향은 “내려오는 벼슬아치들마다 하나같이 훌륭하기만 하구나.”라는 반어 표현을 통해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와 무능함을 비꼬고 있다.

1 ⑤ 2 ⑤ 3 봄 길 4 ②

- 1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있다 →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와 같이 비슷한 시구를 반복하여 내용에 변화를 주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을 뿐, 말하는 이의 정서가 점점 고조되지는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1~6행, 11~14행에서 비슷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10행에서 '보라'와 같이 명령형으로 말하는 이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③ 7~9행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자연물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이 시는 의지적이고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여 말하는 이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2 [A]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말하고 있고, [B]에서는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A]와 [B]를 통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스스로 희망과 사랑이 되어 나아가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3 '길이 끝나는 곳'은 사랑이 끝난 곳, 절망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이와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는 희망의 공간이자 긍정적 공간을 상징하는 '봄 길'이다.

- 4 ㉠은 겉으로는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말하고자 하는 의미나 진리를 담고 있는 '역설' 표현이다. 역설을 활용하면 독자에게 참신하고 신선한 느낌을 주고 (ㄱ), 독자에게 표현에 담긴 의미를 스스로 찾게 하여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ㄷ).

**| 오답 풀이 |** ㄴ, 역설은 겉으로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속에 말하고자 하는 의미나 진리가 숨어 있어 독자가 숨은 의미를 찾아야 하므로 독자와 공감대를 쉽게 형성한다고 볼 수 없다.

ㄹ, 역설은 겉으로는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므로, 독자가 표현에 담긴 의미를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 독집계 ③ 예상 문제

본책 160~163쪽

01 ④ 02 ④ 03 ⑤ 04 잔치에 와서 푸대접을 받은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05 ⑤ 06 ③ 07 ② 08 ㄹ: 탐관오리, ㄷ: 가렴주구 09 ④ 10 ② 11 (1) 반어 (2) 모 두가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임을 비꼴다. 12 ① 13 ③ 14 ③ 15 두꺼비 16 ⑤ 17 ① 18 봄, 길, 봄 길 19 ① 20 ③

- 01 (나)에서 어사또가 비록 모습은 초라하지만 양반의 후예인 듯 하니 끝자리에 앉히고 술이나 먹여 보내자는 운봉 진영장의 제안에 변 사또가 마지못해 허락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변 사또가 어사또의 신분을 눈치챈 것은 아니다.

- 02 자신의 생일잔치에 걸인의 출입을 금한 것으로 보아, 변 사또는 평소 남들에게 잘 배풀지 않는 인색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03 변 사또는 풍성하게 잔칫상을 차렸음에도 불구하고 걸인 차림의 어사또에게는 귀통이가 다 떨어진 개다리소반에 콩나물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만 달랑 내주며 푸대접을 했다. 이에 어사또는 자신의 앞에 차려진 초라한 상을 보고 어이없어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많은 음식 중 갈비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상차림이 초라했기 때문이다.

② 음식의 양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수령들의 것과 달리 자신의 상차림이 초라했기 때문이다.

③ 마루의 가장 끝자리에 상이 놓였기 때문이 아니라, 귀통이가 다 떨어진 개다리소반에 보잘것없는 음식만 주었기 때문이다.

④ 양반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상차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사또에게만 초라한 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 04 ㉠은 실제로 표현하려는 의도와 반대로 나타내는 '반어' 표현으로, 잔치에 와서 푸대접을 받은 상황을 비꼰 것이다.

- 05 ㉡에서 잔치를 벌이던 관리들이 시를 짓는 장면을 통해 당시 양반들이 한시(漢詩)를 창작하며 학식을 과시하던 풍습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양반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규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인근 고을의 수령들이 생일잔치에 참석한 것을 통해 변 사또의 위세를 짐작할 수 있다.

② 요란하고 화려하게 벌이는 변 사또의 생일잔치를 통해 당시 권력층이 사치와 특권을 누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어사또는 주변의 이목을 끌며 등장하기 위해 문 앞에서 큰 소리로 사령들을 불렀다.

④ 어사또는 고을 수령들이 받은 다담상과 대조적으로 초라한 상을 받는데, 이러한 차별적인 대우에 화가 나서 상을 발길로 찬 것이다.

- 06 어사또가 쓴 시에 '원망 소리도 드높구나.'와 같이 감탄형 문장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는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탐관오리의 횡포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탄형 문장으로 사건의 의미를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라)에서 단어의 위치를 바꾸어 말하는 언어유희를 활용하고 있다.

②, ④ (다)에서 열거법을 통해 어사출두를 준비하는 상황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고, 과장된 표현으로 암행어사의 위세를 강조하고 있다.

⑤ (라)에서 열거와 대구의 표현 방법을 통해 관리들이 허둥대며

도망가는 장면을 극대화하고 있다.

- 07 (라)는 암행어사가 출두하자 변 사또의 생일잔치에 모여 있던 관리들이 허둥대며 도망치는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보여 주는 장면이다. 이처럼 풍자 표현을 통해 평소 위엄 있던 관리들의 모습을 희화화하여 탐관오리들의 허세와 부조리한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어사출두로 관리들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중요한 물건들은 놓치고 엉뚱한 것들을 들고 달아나거나, 갓 대신 밥상을 머리에 쓰는 등 우스꽝스럽게 행동한다. 이는 관리들을 희화화하기 위해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이므로, 인물의 행동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관리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 준 것이다. 또한 이 장면은 긴장감을 고조하는 것이 아니라, 웃음을 유발하면서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

④ 어사출두로 관리들이 당황해서 중요한 물건들은 놓치고 엉뚱한 것들을 들고 달아나거나, 갓 대신 밥상을 머리에 쓰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맞지만, 이들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라)는 어사출두로 체면을 잃고 허둥대는 관리들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탐관오리들을 효과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⑤ 인물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묘사한 것일 뿐, 비현실적인 상황을 묘사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아니다.

- 08 [A]는 변 사또의 사치스러운 생일잔치와 백성들의 고통을 대비하여 탐관오리(㉠)의 횡포와 가렴주구(㉡)를 질타하고 있다.

- 09 갑작스러운 암행어사 출두로 변 사또의 생일잔치가 한창이었던 관아는 일순간에 탐관오리를 징벌하는 장소가 된다. 따라서 ㉠은 이 글에서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고(ㄱ), 긴장감을 형성하며(ㄴ) 분위기를 전환하는(ㄷ) 역할을 한다.

**| 오답 풀이 |** ㄹ. 암행어사 출두로 변 사또가 처벌되고 춘향이 풀려나면서, 갈등이 해소된다.

- 10 어사또는 일부터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춘향의 절개를 확인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다.

**| 오답 풀이 |** ① 어사또가 춘향에게 수청을 요구하는 것은 춘향의 순진함을 놀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절개와 신념이 끝까지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려는 행동이다.

③ 어사또가 춘향에게 수청을 요구하는 행위는 춘향의 다른 잘못을 밝히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며, 춘향이 다른 잘못을 숨기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④ 어사또는 자신에 대한 춘향의 절개와 신념이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자 변 사또와 마찬가지로 춘향에게 수청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는 사사로운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어사또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춘향에게 수청을 요구하는 까닭은 신분을 끝까지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분을 밝히기 전에 춘향의 절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11 “내려오는 벼슬아치들마다 하나같이 홀륭하기만 하구나.”라는 말은 반어 표현으로, 춘향은 이러한 반어 표현을 통해 어사또 또한 변 사또 못지않은 탐관오리임을 비꼬고 있다.

- 12 ㉠ ‘바람’은 수청을 들라는 변 사또의 압박, 즉 춘향에게 닥친 시련을 의미한다. [A]의 ‘가을’ 역시 변 사또의 횡포를 뜻한다.

**| 오답 풀이 |** ② ‘낙엽’은 변 사또의 횡포로 인해 위기에 처한 춘향을 의미한다.

③, ④ ‘봄’과 ‘봄바람’은 회생과 희망의 이미지로, 몽룡이 어사또가 되어 돌아온 상황을 의미한다.

⑤ ‘오얏 꽃’은 춘향을 구원한 몽룡, 즉 어사또를 의미한다.

- 13 ㉢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자신의 절개를 꺾지 않겠다는 춘향의 굳은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 14 ‘두엄 위’에서 ‘두엄 아래’로 뛰어내리는 것을 공간 이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에 따라 신분 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두꺼비’가 약자를 괴롭히다가 강자인 ‘백송골’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15 「춘향전」의 ‘변 사또’는 힘없는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이다. <보기>의 ‘두꺼비’ 역시 약자인 ‘파리’를 괴롭히는 존재로,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를 상징한다.

- 16 ㉠은 두꺼비가 백송골을 보고 겁이 나서 두엄에서 뛰어내리다가 자빠졌으면서도, 자신이 날째서 다치지 않았다고 잘난척하는 장면이다. 이러한 모습은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을 뜻하는 한자 성어 ‘허장성세(虛張聲勢)’와 관련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감언이설(甘言利說)’은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이다.

② ‘고진감래(苦盡甘來)’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움을 이르는 말.’이다.

③ ‘설상가상(雪上加霜)’은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④ ‘이심전심(以心傳心)’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을 이르는 말.’이다.

- 17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 사람이 있다’, ‘스스로 ~이 되어’ 등과 같이 비슷한 시구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ㄱ). 또한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등과 같이 역설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에게 참신하고 신선한 느낌을 주면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ㄷ).

**| 오답 풀이 |** ㄴ. ‘길이 끝나는 곳’과 ‘봄 길’이라는 대조적 의미를 가진 부분이 드러나지만, 이를 통해 운율이 형성되지는 않는다.

ㄹ. 의지적이고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였지만, 이를 통해 말하는 이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을 뿐 독자의 성찰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

18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로, 희망의 느낌을 표현한다. 그리고 '길'은 미래, 가능성의 의미를 내포하며, 긍정적·희망적 가치를 표현한다. 이 시는 이 두 단어를 결합한 '봄 길'이라는 시어를 통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과 사랑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19 [A]는 강물은 멈추고 새들은 돌아오지 않고 모든 꽃잎은 흩어져 버리는 등 구체적인 자연의 모습을 통해 절망적인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A]는 시련과 고통도 언젠가 끝이 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낸 것이다.

③ 강물, 새, 꽃잎 등 다양한 자연물을 열거했지만, 이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

④ 계절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⑤ [A]는 멈추거나 돌아오지 않고 흩어지는 모습을 보여 주므로, 순환의 이미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20 이 시는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희망과 사랑이 되어 나아가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고난도 심화문제

본책 164~165쪽

01 ①    02 ③    03 ②    04 ②    05 ㉠: 힘없는 백성,  
⑥: 늙은 흠아비    06 ①    07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

01 (가)에서는 암행어사 출두로 관리들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중요한 물건을 놓치고 엉뚱한 것들을 들고 달아나거나, 갓 대신 밥상을 머리에 쓰는 등 허둥대는 모습을 다양하게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두꺼비가 두엄 아래로 뛰어내리다 자 빠지는 모습만 드러날 뿐, 행동을 다양하게 열거하지 않았다.

02 '유밀과', '송편', '용수', '밥상' 등은 암행어사가 출두하자 당황한 관리들이 중요한 물건 대신 들고 달아난 것들이다. 이는 어사출두로 관리들이 허둥대며 우스꽝스럽게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활용한 소재일 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은 아니다.

03 ①은 모두가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임을 비꼬기 위한 반어 표현이다. ②는 잊지 않았음에도 잊었다고 말함으로써 상대를 향한 그리움과 애절한 마음을 더욱 강조한 반어 표현을 사용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온다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내용을 강조하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③ 님이 이미 떠났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자신은 님을 보내지 않았다고 말하는 모순된 진술을 통해 님을 향한 그리움과 애절한 마음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는 역설 표현을 사용하였다.

④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를 활용하여 현실 극복 의지를 강조하였다.

⑤ 비슷한 어구를 반복하여 그리움의 대상을 나열하는 열거의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다.

04 ⑥에서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어지는 듯하여 풀과 나무, 짐승들까지 벌벌 떨었다며 과장된 표현을 썼는데, 이는 암행어사의 위세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과장된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 암행어사가 자신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증명하며 소설의 분위기가 전환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③ ㉡: '~와(과) ~은 ~을 잃고'라는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 '그 끝이 가관이다.'에 서술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드러난다.

⑤ ㉣: 어사또가 변 사또를 파면하고 옥에 갇힌 죄인들을 불려 공정하게 처결하는 장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05 ㉤ '파리'는 '두꺼비'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약자로, 힘없는 백성(㉠)을 상징한다. <보기>의 '늙은 흠아비(㉡)' 역시 애써 갈고 맨 농작물을 '참새'에게 빼앗기는 존재로, 탐관오리의 수탈로 어려움을 겪는 힘없는 백성을 상징한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에 ㉤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에 <보기>에서 ㉤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시어를 찾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6 [A]에서 봄 길의 풍경을 감각적 이미지로 묘사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A]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고, 길이 끝나는 곳에서 스스로 봄 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07 <보기>를 통해 '봄 길'의 의미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희망의 공간이자 긍정적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봄 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스스로 봄 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의 의미를 '봄 길'의 상징적 의미와 관련지어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희망'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02 영상 매체 자료 제작하기

활동 학습

본책 168~179쪽

- 1 ① 2 ② 3 ④ 4 진정한 우정과 소통의 중요성 5 ⑤  
6 단편 영화 7 ④ 8 ④ 9 복합양식성 10 ⑤  
11 ③ 12 ② 13 ② 14 룡 솟 15 ④ 16 자막  
17 ① 18 ⑤ 19 ⑤ 20 ① 21 편집 22 ④

- 1 포스터는 주로 이미지나 인쇄물 형식으로 움직임이나 소리 없이 글자와 그림, 색채를 활용해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영상 매체 자료가 아니라 시각 자료에 속한다.
- 2 영상 매체 자료의 제작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작 목적, 영상의 유형, 제작한 영상을 공유할 매체, 예상 시청자, 주제 등을 정하고 구체적인 기획안을 작성한다. 촬영 방법은 시나리오 및 스토리보드를 쓸 때 정한다.
- 3 석현이네 동아리 친구들은 ○○사에서 청소년 영화제를 주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단편 영화를 찍어서 청소년 영화제에 출품하기 위해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하려고 한다.
- 4 석현이네 동아리 친구들은 요즘 혼자 스마트폰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 친구와 직접 소통하여 우정을 쌓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 착안하여, '진정한 우정과 소통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단편 영화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 5 영상 제작 기획안에는 영상의 제목, 유형, 분량, 기획 의도, 내용, 역할 분담, 일정, 준비물 등을 정리한다. 예상 시청자의 상황은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영상을 체계적으로 제작하기 위해 쓰는 기획안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 6 석현이네 동아리의 영상 제작 기획안의 역할 분담과 일정을 정리한 내용을 통해 '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기획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분량이 7분 내외임을 통해 단편 영화를 제작하려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7 영상 제작 기획안을 작성할 때 영상의 내용은 기획 의도가 잘 드러나도록 마련해야 한다. 이 영상 제작 기획안에 제시된 기획 의도는 '진정한 우정과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므로, 이러한 기획 의도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작성한 것이다.
- 8 촬영한 장면에 배경 음악, 효과음, 자막 등을 넣어 재구성하는 것은 '편집' 담당자가 할 일이다.  
|오답 풀이| ① '감독'은 영상 제작과 관련한 모든 일을 총괄한다.  
② '연기' 담당자는 배역에 맞게 인물의 성격과 행동을 표현한다.  
③ '촬영' 담당자는 다양한 촬영 기법을 활용하여 영상을 촬영한다.  
⑤ '시나리오' 담당자는 장면과 순서, 배우의 행동과 대사 등을 글로 표현한다.

- 9 영상 매체 자료는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복합양식성'을 지니기 때문에 내용을 더욱 생생하고 감각적으로 전달한다.
- 10 석현이네 동아리에서 쓴 스토리보드에는 장면 그림 및 내용, 촬영 방법, 대사와 내레이션을 전달하는 자막, 효과음, 인물의 대사 등이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장면 제목을 보여 주는 자막'에 관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 11 영상을 촬영할 때 장면의 내용과 촬영 의도에 따라 카메라와 대상 사이의 거리 및 각도를 조절하여 촬영해야 하는 것이지, 사용하는 카메라의 종류에 따라 대상을 촬영하는 의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12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 대상이 다르게 표현되는데, 대상을 아래에서 촬영하여 대상을 강조하거나 위엄 있게 표현하는 촬영 방법은 '로 앵글'이다. '하이 앵글'은 대상을 눈높이에서 촬영하여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촬영 방법이다.
- 13 ①은 채빈이와 친구들을 보는 석현이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촬영하여 실망스러운 석현이의 심리를 강조하였다.  
|오답 풀이| ① 석현이를 눈높이에서 촬영했다고 볼 수 있으나,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느낌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석현이의 표정을 중심으로 보여 주고 있을 뿐, 석현이의 행동이나 배경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④ 다른 인물의 시선은 드러나지 않으며, 석현이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석현이의 상체를 중심으로 촬영한 것은 맞지만, 석현이의 움직임이나 역동적인 느낌은 드러나지 않는다.
- 14 ①은 채빈이와 친구들의 시선에서 보이는 석현이의 모습을 멀리서 촬영하였다. 따라서 카메라의 거리에 따른 촬영 방법 중 대상을 멀리 촬영하여 전체적인 모습과 배경까지 보여 주는 '룡 솟'의 촬영 방법이 사용되었다.
- 15 영상 매체 자료에서 배경 음악이나 효과음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인물의 감정 변화를 드러내고 장면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처럼 청각적 요소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 장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 16 자막은 장면 속 상황을 설명하거나 대사를 전달하는 데 주로 쓰인다. 그뿐만 아니라 인물의 감정을 강조하거나 속마음을 표현하고, 장면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에도 활용되어 상황이나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다.
- 17 배경 음악은 인물의 감정이나 장면의 분위기와 어울려야 한다. 채빈이의 밝고 명량한 성격과 장면의 즐거운 분위기를 강조하는 데에는 경쾌한 배경 음악이 가장 어울린다.  
|오답 풀이| ② 천둥과 비 내리는 소리는 쓸쓸한 분위기나 우울

한 마음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③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는 설레는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④ 잔잔하고 슬픈 배경 음악은 슬픔, 그리움, 외로움 같은 감정이나 쓸쓸하고 우울한 분위기를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⑤ 긴장감을 조성하는 배경 음악은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거나 앞으로의 갈등을 암시할 때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8** 인물들이 나누는 메시지의 내용이나 장면의 제목을 자막으로 제시하면 영상 속 상황에 관한 정보가 명확하게 전달되므로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19** 제작한 영상 매체 자료를 공유하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영상 매체 자료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제작한 영상 매체 자료를 공유한다고 해서 영상 제작자의 폭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②, ③ 제작한 영상 매체 자료를 공유한다고 해서 영상 매체 자료의 저작권이나 영상에 출연한 친구들의 초상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제작한 영상 매체 자료를 공유할 때에는 영상의 저작권이나 영상에 출연한 친구들의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④ 영상의 주제는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한 기획 의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주제를 재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 영상 매체 자료를 평가할 때에는 영상 구성이 모호한지가 아니라 영상이 전체적으로 완성도 있게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

**21** ㉠은 영상에 활용한 효과음(타자 치는 소리)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효과음은 영상을 촬영한 후 편집하는 과정에서 넣으므로, 이는 영상 매체 자료의 요소 중 ‘편집’을 고려하여 평가한 것이다.

**22** ㉠은 영상에 새로운 장면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의 제안에 대해 작성자는 제안한 장면을 추가하면 석현이가 스마트폰에만 의존했던 까닭을 더욱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반응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석현이는 혼자 스마트폰을 하며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채빈이와 친구들의 도움으로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을 줄이고 친구들과 어울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석현이의 성격 변화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석현이가 엄마와 행복했던 시간을 회상하는 장면과는 관련이 없다.

② 엄마와 행복했던 시간을 회상하는 장면과 석현이가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관련이 없다.

③, ⑤ 석현이와 채빈이가 갈등하게 된 계기는 한강에서 석현이가 스마트폰을 찾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짐과 가방을 허락 없이 확인한 것이고, 석현이와 채빈이가 화해하게 된 계기는 석현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큐알(QR) 코드로 만들어 채빈이에게 전달한 것이다.

## 독집해 쏙 예상문제

본책 180~183쪽

01 ③ 02 ④ 03 ① 04 진정한 우정과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05 ① 06 ② 07 ① 08 ④ 09 ② 10 각 장면을 구분하고, 장면의 순서를 나타낸다. 11 ③ 12 ① 13 석현이의 행동을 제삼자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주고자 한다. 14 ④ 15 ④ 16 ⑤ 17 ⑤ 18 ③

**01** (가)에서 대화 참여자들은 영상 매체 자료의 제작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영상 매체 자료의 제작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제작 목적, 영상의 유형, 예상 시청자, 주제, 제작한 영상을 공유할 매체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가)에서는 제작한 영상을 공유할 매체나 방법에 관한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

**02** (나)는 (가)의 대화를 나눈 후 작성한 영상 제작 기획안이다. 이 기획안에는 주요 장면을 선정한 내용이나 선정한 장면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주요 장면을 선정하고 장면의 순서를 정리하는 것은 시나리오 및 스토리보드를 쓰는 과정에서 한다.

**03** 영상 제작과 관련한 모든 일을 총괄하는 사람은 감독이다. ‘편집’ 담당자는 촬영한 장면에 배경 음악, 효과음, 자막 등을 넣어 재구성한다.

**04** (가)에서 진정한 우정과 소통의 중요성을 영상(단편 영화)의 주제로 하자고 하였으므로, 이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여 ‘진정한 우정과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이 ㉠에 들어갈 기획 의도로 적절하다.

**05** (가)는 배우의 대사와 동작, 장면이나 그 순서 등을 상세하게 표현한 것으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쓴 각본인 시나리오이다. (나)는 시나리오(각본)를 바탕으로 주요 장면을 시각화하여 정리한 장면 연출 판인 스토리보드이다.

**06** (가)에서 엄마의 대사는 연기자의 등장 없이 소리만으로 나온다. 따라서 엄마의 의상은 준비할 필요가 없다.

**07** (가)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쓴 각본인 시나리오로, 배우의 대사와 동작, 장면 번호나 효과음 등을 상세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영상의 기획 의도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영상 제작 기획안에 포함해야 할 요소이다.

**08** 자막은 영상 매체 자료의 구성 요소 중 시각적 요소에 해당한다.

**09** (나)는 시나리오(각본)를 바탕으로 주요 장면을 시각화하여 정리한 장면 연출 판인 스토리보드이다. 스토리보드는 촬영할 장면을 미리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의도한 대로 장면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장면에 대한 시청자의 예상 반응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

10 (나)에서 장면 번호[S#(Scene Number)]의 숫자 '1-1, 1-2, 1-3, 1-4'는 각 장면을 구분하고 장면의 순서를 나타내기 위하여 붙이는 번호이다.

11 'E(Effect)'는 효과음을 나타내는 시나리오 용어로, 장면의 실감을 더하기 위하여 넣는 소리를 나타낸다.

**| 오답 풀이 |** ① 등장인물이나 시간적·공간적 배경 등을 설명하는 부분은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 중 해설이다.

② 특정 장면 사이에 삽입되는 짧은 화면임을 표시하는 부분은 '인서트'로, 시나리오에 'INS.(Insert)'로 표기한다.

④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표정, 배경 음악, 카메라의 위치 등을 지시하는 부분은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 중 지시문이다.

⑤ 장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진행에 따라 내용이나 줄거리를 화면 밖에서 해설하는 부분은 '내레이션'으로, 시나리오에 'NAR.(Narration)'로 표기한다.

12 ㉠과 같이 인물의 심리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가까이 촬영하여 표정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클로즈업 샷'으로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과 같이 전체적인 상황을 한눈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멀리서 촬영하여 전체적인 모습과 배경까지 보여 주는 '롱 샷'으로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13 <보기>는 하이 앵글, 즉 대상을 위에서 촬영한 것으로, 이러한 각도로 촬영하면 전체를 조망하거나 대상을 작아 보이게 할 수 있다. <보기>의 경우 석현이의 행동을 제삼자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14 '미디엄 샷'은 인물의 상체를 중심으로 촬영하여 인물의 동작이나 표정을 보여 줄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로 앵글'은 대상을 아래에서 촬영하여 대상을 강조하거나 위엄 있게 표현할 수 있다.

② '하이 앵글'은 대상을 위에서 촬영하여 전체를 조망하거나, 대상을 작아 보이게 표현할 수 있다.

③ '아이 앵글'은 대상을 눈높이에서 촬영하여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⑤ '클로즈업 샷'은 대상을 가까이 촬영하여 표정이나 상태 등을 강조하고, 대상의 감정이나 상황을 세밀하게 전달할 수 있다.

15 ㉢은 혼자 쓸쓸하게 걸어가는 인물(석현)의 뒷모습을 멀리서 촬영한 것이다. 따라서 이 장면에 삽입된 천둥과 비 내리는 소리는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물(석현)의 우울한 마음을 강조한다.

16 ㉠은 반갑게 인사하는 인물(채빈)의 문자를 받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는 인물(석현)의 속마음을 자막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물(석현)의 상황과 감정을 전달하고 있을 뿐,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것을 예고한다고 보기 어렵다.

17 제작한 영상 매체 자료를 공유하고 평가할 때에는 영상 매체 자료의 저작권과 출연한 친구들의 초상권을 고려하여 함부로

유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8 영상 매체 자료를 평가할 때에는 내용, 촬영, 편집, 연기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제작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잘 드러났는지는 영상 매체 자료의 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고난도 입심화문제

본책 184~185쪽

01 ④ 02 영상 매체 자료는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복합양식성을 지닌다. 03 ① 04 ㉠은 클로즈업 샷을 사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강조하고, ㉡은 롱 샷을 사용하여 인물 간의 거리감을 드러낸다. 05 ① 06 ⑤ 07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하기

01 (나)는 스토리보드로, 시나리오(각본)를 바탕으로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주요 장면을 시각화하여 정리한 장면 연출 판을 말한다. 배우의 대사와 동작, 장면이나 그 순서 등을 글로 상세하게 표현한 것은 시나리오(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쓴 각본)이다.

02 (나)를 통해 영상 매체 자료는 '카메라와 대상 사이의 거리 및 각도, 자막' 등의 시각적 요소와 '배경 음악, 효과음, 등장인물의 대사' 등의 청각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복합양식성을 지님을 알 수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다는 내용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복합양식성을 지닌다는 내용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input type="checkbox"/>               |

03 알람 소리는 석현이가 잠에서 깨는 상황을 보여 주기 위해 삽입한 효과음이다. 알람을 듣고 잠에서 깬 석현이가 늦잠을 잤음을 깨닫는 장면이 이어지므로, 알람 소리가 평화로운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알람 소리는 적막함을 깨거나 긴장감을 조성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② S# 1-1에서 석현이가 누워 있는 모습을 위에서 아래로 촬영한다고 하였으므로 하이 앵글로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S# 1-1에서 "아, 뭐야. 지각이네?"라는 대사를 통해 석현이가 늦잠을 잤음을 깨닫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당황한 모습이 드러나게 연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 S# 1-2에서 석현의 내레이션이 자막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편집할 때 인물의 내레이션을 자막으로 넣어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⑤ S# 1-2의 '장면 그림'에 석현이가 스마트폰으로 냉장고에 붙은 큐알(QR) 코드를 인식하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소품 담당자는 큐알(QR) 코드를 인쇄한 종이를 냉장고에 붙여 두어야 한다.

- 04** ㉠은 대상을 가까이 촬영하여 표정이나 상태 등을 강조하는 '클로즈업 샷'을 사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강조하고 있다. ㉡은 대상을 멀리 촬영하여 전체적인 모습과 배경까지 보여 주는 '롱 샷'을 사용하여 인물 간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은 클로즈업 샷을 사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강조한다는 내용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은 롱 샷을 사용하여 인물 간의 거리감을 드러낸다는 내용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05** 교실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의 시선에서 교실 전체를 조망하는 느낌을 주어야 하므로, 학생들이 앉을 자리를 위에서 촬영하는 '하이 앵글'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06** 자막을 활용하면 인물의 대사나 영상 속 상황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여 상황이나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은 장면의 제목을 자막으로 제시한 것이므로 인물의 대사를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7**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한 후 이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서로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영상 매체 자료의 보완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영상 매체 자료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 평가 기준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부족한 부분을 찾아 이를 수정·보완할 수 있음을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썼다.              | <input type="checkbox"/>               |

#### 대단원 평가문제

본책 186~191쪽

- 01 ②    02 ③    03 ③    04 ⑤    05 ①    06 ②  
 07 시련이 닥쳐도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    08 ④    09 ③  
 10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    11 ①    12 ③    13 ④  
 14 ⑤    15 ②    16 ①    17 ②    18 ③    19 ②  
 20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물의 우울한 감정을 표현하고자 한다.    21 ①

- 01** 잔치 자리에 차려진 음식은 풍성했지만, 어사또에게만 귀퉁이가 다 떨어진 개다리소반에 콩나물과 깍두기, 막걸리 한 사

발만 달랑 내주며 푸대접을 했다.

- 02** ㉠은 어사또가 지은 시로, 변 사또의 사치스러운 생일잔치와 백성들의 고통을 대비하여 탐관오리의 횡포와 가렴주구를 질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을 통해 현실 상황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현실 상황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을 뿐, 웃음을 유발하는 내용은 없다. ㉠은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을 예고하며 긴장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② 탐관오리의 횡포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을 예고하고 있을 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것을 예고하지는 않는다.

④ 탐관오리의 횡포와 가렴주구를 질타하는 내용이므로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탐관오리의 사치와 백성들의 고통을 대조한 것이지,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대조적인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 03** ㉡에서 어사또는 비록 걸인의 행색이지만 순식간에 시를 지음으로써 자신이 양반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 04** (가)에서는 어사출두 후에 변 사또와 잔치 자리에 모인 수령들이 낮을 잃고 허겁지겁 달아나는 모습이 드러난다(ㄹ). 이어서(나)에서는 어사또의 역졸들이 부정한 관리들을 잡아들이고(ㄷ), 변 사또를 파면한 뒤 억울하게 갇혀 있던 죄 없는 사람들을 풀어 준다(ㄴ). 그리고 어사또가 춘향의 절개를 시험하지만, (다)에서 춘향이 지조와 절개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인다. (라)에서는 춘향과 몽룡이 마침내 재회의 기쁨을 나누게 된다(ㄱ).

- 05** <보기>에서 비판하는 대상은 약자인 '파리'를 괴롭히는 '두꺼비'이다. '백송골'은 '두꺼비'가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중앙의 고위 관료를 상징한다.

- 06** ㉠은 반어 표현으로, 춘향은 반어 표현을 통해 어사또 또한 변 사또 못지않은 부정한 관리라고 비꼬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웃음과 재미를 주는 표현은 언어유희이다. ㉠에 언어유희는 사용되지 않았다.

③, ④ ㉠은 상황이나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 표현으로, 대상을 비꼬거나 비판하는 뜻을 담고 있다. 따라서 대상의 긍정적인 면모를 드러내거나 상대의 기분을 배려하여 부드럽게 돌려 말하는 것이 아니다.

⑤ 반어 표현은 상황이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 07** ㉠은 춘향이 자신의 굳건한 신념을 '높은 바위'와 '푸르른 나무'에 빗대고, 자신을 핍박하는 권력의 압박을 '바람'과 '눈'에 빗대어 자신의 절개가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 08** ㉡은 춘향이 몽룡을 확인하며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극적

인 반전을 맞이하는 순간이다. 따라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맞지만, 새로운 갈등의 시작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09 7~9행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자연물을 통해 표현하고 있을 뿐, 자연물을 의인화한 표현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 시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있다’와 같이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참신하고 신선한 느낌을 준다.

10 ‘길이 끝나는 곳’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곳에도 길이 있다는 역설 표현을 활용하여 아직 희망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11 ‘길’은 미래, 가능성의 의미를 내포하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가치를 표현한다(ㄴ).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봄’과 긍정적이며 희망적인 가치를 담은 ‘길’이 결합한 ‘봄 길’은 희망과 긍정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제시된다(ㄱ).

**| 오답 풀이 |** ㄷ. 이 시에서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로, 희망의 느낌을 표현한다.

ㄹ. 이 시에서 ‘봄 길’은 희망을 상징하고 있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2 ㉠은 길으로는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말하고자 하는 의미나 진리를 담고 있는 역설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사랑이 끝나도 절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극복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은 말의 차례를 바꾸어 쓰는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이별의 상황에서 슬픔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 ‘떠들썩하게 기세를 올려 지르는 소리’라는 뜻의 아우성을 소리가 없다는 말로 수식하는 것은 모순된 표현이므로 역설 표현이 사용되었다.

㉡ 님이 이미 떠났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자신은 님을 보내지 않았다고 말하는 모순된 진술에서 역설 표현이 사용되었다.

㉣ ‘찬란한’이라는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와 ‘슬픔’이라는 어둡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동시에 ‘봄’에 결합되는 역설 표현이 사용되었다.

㉤ ‘괴로움’과 ‘행복’이라는 상반된 개념이 하나의 인물 안에 동시에 담겨 있는 역설 표현이 사용되었다.

13 요즘은 혼자 스마트폰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 친구와 직접 소통하며 우정을 쌓는 경우가 드문 청소년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제로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하려는 것이지, 제작한 영상 매체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공유하려는 것은 아니다. 제작한 영상 매체 자료를 어떻게 공유할지에 대한 내용은 (가)에 드러나지 않는다.

14 (나)는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작성한 영상 제작 기획안으로, 기획안에 활용할 촬영 방법은 쓰지 않는다. 구체적인 촬영 방법은 시나리오와 스토리보드를 쓸 때 정리한다.

15 영상을 제작할 때 감독은 영상 제작과 관련한 모든 일을 총괄한다.

16 (가)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쓴 시나리오(각본)로,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처럼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현재형으로 쓴다.

17 (나)는 스토리보드로, 시나리오(각본)를 바탕으로 하여 주요 장면을 시각화하여 정리한 장면 연출 판이다. 따라서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주요 장면을 재구성하여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주요 장면을 시각화하여 정리해야 한다.

18 (나)에서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를 어떻게 연출할지 정리한 것을 통해 영상 매체 자료는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가 어우러진 복합양식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만 사용할 때보다 내용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 여러 가지 정보를 한눈에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 자료 형태는 표나 그래프이다. 영상 매체 자료는 여러 가지 정보를 한눈에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 영상 매체 자료는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내용을 더욱 생생하고 감각적으로 전달한다.

㉣ 수용자에 따라 영상 매체 자료를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주제가 다양해지는 것은 아니다. 계획하기 과정에서 정한 기획 의도와 주제에 따라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하므로, 제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는 변하지 않는다.

㉤ 영상 매체 자료를 활용하면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만 사용할 때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지, 내용을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19 ㉠은 채빈이와 친구들의 시선에서 보이는 석현이의 모습을 멀리서 촬영하여 사과를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석현이의 행동을 강조하고, 석현이와 친구들 사이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 ㉠은 실망스러운 석현이의 심리를 강조하기 위해 석현이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촬영하였다.

㉢ ㉢은 사과를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석현이의 모습을 한눈에 전달하기 위해 멀리서 촬영하였다.

㉣, ㉤ ㉣은 몰래 스마트폰을 하려고 체육관 창고에 들어오는 석현이의 모습을 위에서 아래로 촬영하여 석현이의 행동을 제삼자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20 영상 매체 자료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배경 음악이나 효과음에 따라 인물의 감정이나 장면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보기>는 어깨가 축 처진 인물의 뒷모습을 촬영한 장면에 ‘천둥과 비 내리는 소리’라는 효과음을 추가함으로써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물의 우울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21 자막은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촬영한 후 편집하는 과정에서 추가한다.